

MYART AUCTION

SEPTEMBER 10, 2026





(주) 마이아트옥션 제61회 메이저 경매

발 행 처 (주) 마이아트옥션
발 행 2026년 09월 10일

사 진 플래시큐브 스튜디오 | 남가용
디 자 인 원더디자인 | 전지원

Copyright© 2026 MYART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주)마이아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40,000

* 이 도록은 정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이 도록의 오탈자 및 오류를 알려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MYART AUCTION^{61st}

제61회 마이아트옥션 메이저 경매

MAJOR AUCTION

2026.09.10 THU 4PM

LOCATION

마이아트옥션하우스 2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PREVIEW

2026.08.31.MON - 09.09.WED

10AM - 6:30PM

LOCATION

본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5F

경매 주요 약관 및 안내

회원가입

(주)마이아트옥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는 경매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응찰 희망자는 (주)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뷰를 통해 작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응찰을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정회원 연회비 : 10만원) 정회원은 유료이며, 마이아트옥션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이 발송됩니다.

응찰방법

서면, 현장, 전화 응찰, 비공개 응찰이 가능하며,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은 경매 당일 오후 2시까지 응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금액 응찰 시 우선순위는 서면, 현장, 전화 순입니다.

비공개 응찰의 경우

[비공개 응찰의 자격]

마이아트옥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마이아트옥션이 요청하는 응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응찰의 진행]

◆ 표시가 된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응찰자는 프리뷰 기간 내에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응찰서를 교부받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입찰금액은 낮은 추정가를 적용합니다.

(낙찰 후에는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매 수수료 및 대금 결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317-0009-8112-11 (주)마이아트옥션

작품상태 및 보증

모든 작품은 출품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며, 당사에서 구매하신 작품에 대한 보증에 내용은 경매일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되며, 당사에서는 작품보증서를 발부합니다. 작품의 보증내용은 (주)마이아트옥션 경매약관 제14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시, 보증기간인 3년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한 후 모든 의견이 일치할 시에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제외**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의 양도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낙찰 철회 시 위약금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별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품 설명 자료

이 도록에서 제공하는 작품 설명(Caption) 자료의 기준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화를 포함하여 도자, 목기, 공예품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작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가명

아호, 성명, 한자명, 단 외국 작가는 원어

생물년

0000- 는 현재 생존, 0000-? 는 물년미상

작품명

작가가 정한 이름이나, 화제나 작품의 내용을 참고한 자료

제작연도

작품에 포함된 정보 또는 도록 등에 근거한 자료

형태

출품된 작품을 꾸민 방법

재질 및 재료

작품의 바탕 및 제작 재료

크기(cm)

평면 세로×가로 (표구 면이나 액자를 제외한 실제 작품 크기)

입체 높이[고高]×입지름[구경口徑]×밑지름[저경底徑] (도자기)
높이×세로×가로 (목기)

기타 얇고 긴 경우는 길이,
굴곡이 많은 경우는 높이×최대길이,
여러 점인 경우는 대표적인 작품

추정가

당사가 미술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작품해설, 탈초·번역

「작품수록처」,「참고문헌」 등은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전(傳)

작품의 경향(필치, 채색, 구도)으로 보아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경우나 작품의 제작부터 판매 그리고 전시기록, 도록 등의 출처(Provenance)가 분명한 경우, 소장인, 감장인, 제발, 배관기 등 내력이 분명한 경우나 관지 인장이 있는 경우라도 전(傳)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추정은 가능하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탈초, 번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도록 후면에 게재된 경매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가 및 작품명 가나다순

회화·서예

고희동 高羲東	1886-1965	1
김응환 金應煥	1742-1789	19, 20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23
배렴 裴濂	1911-1968	3
백은배 白殷培	1820-1901	4
변관식 卞寬植	1899-1976	11
안중식 安中植	1861-1919	13, 14
양기훈 楊基薰	1843-1911	26
오순 吳珣	?-?	5
오일영 吳一英	1890-1960	2
이광사 李匡師	1705-1777	22
이도희 李道熙	1906-1988	34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10
이은 李垠	1897-1970	25
이택균 李宅均	1808-1892	28
이한복 李漢福	1897-1944	23
전영택 田榮澤	1894-1968	35
정상기 鄭尙驥	1678-1752	15
정선 鄭敼	1676-1759	21
정학교 丁學敎	1832-1914	9
조석진 趙錫晉	1853-1920	8, 12
최북 崔北	1712-1786년 경	6

작자미상

가응도 대련	27
곽분양행락도 6폭병풍	29
금강산도 8폭병풍	18
대한지지	16
백동자도 10폭병풍	31
악리도 2점	7
열성어필	24
책거리 10폭병풍	32
최신고등대한지지	17
화조도 8폭병풍	33
황룡도	30

도자

백자명기 도용 8점 일괄	55
백자양이잔	57
백자철화운룡문호	53
백자동화초문소병, 백자청화연화문소호	37
백자청채음각화문병	44
백자청화난초문약호	42
백자청화매죽문병	43
백자청화운룡문병	45
백자청화장생문병	54
백자청화'제'명제기	56
백자청화칠보문화장기 2점	36
분청사기덤병잔	40
분청사기박지모란문유개호	52
분청사기상감수파어문장군	51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41
청자상감국화문합	50
청자상감국화문합, 청자연리문합	47

청자상감운학문완	48
청자음각초화문주자	49
청자철채선문유병	46
청자철화퇴화국화문유병	38
청자퇴화국화문유병	39

가구·공예

경상	68
경서필통	63
곱돌주자	71
구족연상	67
금사자수단학홍배 한 쌍	61
나전빛접	78
나전칠산수문문갑	79
나전칠어피태금문구형함	77
나전칠장생문연상	76
나전칠화초학문함	75
만자문붓걸이	64
매죽학문일월연	66
목안	60
보성재판	81
붓걸이	65
약장	70
약함	69
예천소반	73
옷칠음각송록문함	74
우보소반	72
은입사장생문필통	62
죽장함	80
표주박	58, 59

INDEX



PART 1

회화·서예

繪畫·書藝

PAINTING·CALLIGRAPHY

Lot.001 - 035

춘곡 고희동 1886-1965
春谷 高義東 Koh HeeDong

천보구여도 天保九如圖 The Nine Blessings
1956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26.5×35.4cm

₩ 1,000,000-2,000,000

天保九如圖 천보구여도¹⁾

丙申秋日, 祝金栗巖賢契春府大人廣巖先生七十歲壽 병신년(1956) 가을날, 마음 통하는 친구 김율암金栗巖의 부친 광암廣巖 선생의 70세 장수를 축하하며

春谷 춘곡

[인문] 高義東印, 春谷, 頌九如以祝之

1) 천보구여도는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아홉 가지 소재, 즉 산산, 언덕[阜], 산등성이[岡], 높은 구릉[陵], 강[川], 달[月], 해[日], 남산南山, 소나무와 잣나무[松柏]의 아홉 가지 소재를 그려 만수무강을 빌던 그림 형식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천보天保> 편에 “하늘이 그대를 보호하사 성대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산과 같고 언덕 같으며, 외와 같고 높은 구릉 같으며, 냇물이 한창 이르는 것과 같아서, 더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달이 가득 찬 것 같고, 해가 돋은 것 같으며, 남산같이 장수하여 이지러 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소나무와 잣나무 같이 무성하여 그대에게 모든 것이 길이 무성하리로다.[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以莫不增, 如月之恒,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정재 오일영 1890-1960
靜齋 吳一英 Oh IlYeong

강수청홍 江樹靑紅 Autumn Landscape
배집 Mount on Panel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21×53cm

江樹靑紅江草黃 강가 나무는 알록달록하고 강가의 풀은 누르데
好山不斷楚天長 산줄기가 끊이지 않아 고향 하늘은 멀기도 하네
雲中樓閣無人住 구름 속 누각에는 머무는 사람이 없고
只有秋聲送夕陽 그저 가을 소리만이 석양녘에 전해오네¹⁾

靜齋 정재

[인문] 吉祥, 吳一英, 靜齋

1) 원나라 정학년(丁鶴年, 1335-1424)의 <그림에 쓰다[題畫]>라는 시를 쓴 것이다.

₩ 1,000,000-2,000,000



003

제당 배렴 1911-1968
齋堂 裴濂 Bae Ryeom

정관만물 靜觀萬物 Monkey

1968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33×47cm

₩ 1,000,000-2,000,000

靜觀萬物 고요히 만물을 관찰하다
戊申元朝, 爲祝百想先生大人新年大吉祥 무신년(1968) 정초에 백상百想 선생 대인
의 신년 대길상을 축하하며

齋堂 제당

[인문] 裴濂, 齋堂, 書禪

백상百想은 한국일보 사장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장기영(張基榮, 1916-1977)의 호
이다. 언론인, 체육인, 경제인, 정치인으로 많은 공적을 남겼다.



004

임당 백은배 1820-1901
琳塘 白殷培 Baek EunBae

웅계도 雄鷄圖 Rooster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20×24cm

₩ 1,000,000-2,000,000

喔喔報曉晨 꼬끼요 새벽을 알리다
琳塘 임당

[인문] 白殷培印



초전 오순 ^{?-?}

蕉田 吳珣 Oh Sun

화조도·배추 花鳥圖·白菜 Birds and Flowers, Cabbag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각 19×17cm

₩ 10,000,000-20,000,000



蕉田散人 초전산인

[인문] 吳珣

초전 오순(蕉田 吳珣, ?-?)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로 1805년에 문조왕세자 책례도감에서 육인의 전문을 보필하는데 참여하였고, 1812년부터 1817년까지 차비대령화원으로 봉직하는 것으로보아 19세기 활동한 작가로 보인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옥여玉汝, 호는 초전蕉田. 초전산인蕉田山人이다. 남종화풍의 여러 필법을 두루 익혔으며 화원이면서도 문인화풍의 산수를 그린 역량 있는 작가이다.



호생관 **최북** 1712-1786년 경
毫生館 崔北 Choi Buk

오하완월도 梧下玩月圖 Moon Viewing under a Paulownia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51×37cm

₩ 7,000,000-15,000,000

毫生館 호생관

[인문] □□

북송 시대 소옹(邵雍, 1012-1077)이 달빛 아래 거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옹이 지은 <달이 오동나무 위에 걸리기에[月到梧桐上吟]>라는 시가 참고가 된다.

月到梧桐上 달이 오동나무 위에 걸리자
風來楊柳邊 바람은 버드나무 곁으로 불어오네
院深人復靜 깊숙한 뜰에 사람도 다시 고요해지니
此景共誰言 이 경치를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까



약리도 2점

躍鯉圖二點
Two Paintings of Leaping Carp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각 39×38cm

₩ 2,000,000-4,000,000



008

소림 조석진 1853-1920
小琳 趙錫晉 Cho SeokJin

무수한린 無數間鱗 Fish under a Willow Tree
배접 Mount on Pane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3×30cm

無數間鱗齊上下 한가로운 물고기 떼가 나란히 오르내리며
欲隨春浪上龍門 봄 물결을 따라서 용문을 올라가려 하네¹⁾

小琳 소림

1) 송나라 이기(李祁, 1299-1368)의 <붉은 잉어 그림에 쓰다[題赤鯉圖]>라는 시의 뒷부분을 쓴 것이다. 용문龍門은 황하 상류의 험준한 협곡으로 그 폭포를 물고기가 뛰어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인문] 小琳

₩ 1,000,000-2,000,000



009

몽인 정학교 1832-1914
夢人 丁學敎 Jung HakGyo

일수춘풍 一樹春風 Ink Plum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9.7×52.3cm

一樹春風 한 나무에 불어온 봄바람
朝鮮夢中夢人 丁鶴喬 조선 몽중몽인 정학교

[인문] 香口壽

₩ 1,000,000-2,000,000



010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Lee SangBeom

乙未春靑田 을미년 봄 청전 그리다.
[인문] 靑田畫印

춘경산수도 春景山水圖 Spring Landscape
1955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45×55cm

₩ 5,000,000-10,000,000



011

소정 **변관식** 1899-1976
小亭 卞寬植 Byeon Gwansik

小亭 소정
[인문] 卞寬植印, 小亭

매사냥 鷹獵圖 Falconry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33.4×32.5cm

₩ 2,000,000-4,000,000



소림 **조석진** 1853-1920
小琳 趙錫晉 Cho SeokJin

도화유수 桃花流水 Fish and Crab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04×36.8cm

₩ 3,000,000-6,000,000

桃花流水鰕魚肥 복사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이 올랐다¹⁾

小琳書 소림이 그리다

[인문] 趙錫晉印, 小琳

1) 당나라 은자隱者 장지화(張志和, 730-810)의 <어부사漁父詞>에 “서쪽 변방의 산 앞에 백로가 날고, 복사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가 살이 올랐다. 푸른 샛갓 쓰고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비긴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西塞山前白鷺飛, 桃花流水鰕魚肥. 青蓑笠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라는 시에서 한 구절만 쓴 것이다.



013

심전 **안중식** 1861-1919

心田 安中植 Ahn JoongSik

연하원앙도 蓮下鴛鴦圖 Pair of Mandarin Ducks in a Lotus Pond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담채 Color on Paper
170.6×46.3cm

₩ 10,000,000-20,000,000

蓮下鴛鴦圖 연하원앙도
心願散人寫 심전산인이 그리다

[인문] 安中植印, 心田



심전 안중식 1861-1919

心田 安中植 Ahn JoongSik

추경산수도 秋景山水圖 Autumn Landscape

1909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154.5×62.2cm

₩ 100,000,000-200,000,000

秋盡蕭蕭水一涯 가을도 다 지나 쓸쓸한 이 물가에
晚風幾度夕陽斜 저녁 바람 자주 불고 석양이 기우는데
疎林秀竹茆亭外 성긴 수풀 수려한 대숲 띠풀 정자 밖에
逐隊飛來入暮鴉 떼를 지어 날아오는 저물녘 까마귀로다
隆熙己酉秋日 心田安中植書 윤희 기유년(1909) 가을날, 심전 안중식이 그린다.

[인문] 安中植印, 墨備

賜總管趙民熙 총관 조민희에게 하사함.
珠淵 주연

[인문] 珠淵

奎章閣卿 臣 趙同熙 奉勅謹書
규장각경 신 조동희가 칙명을 받아 삼가 쓰다.

본 작품은 고종(高宗, 재위 1864-1907)이 1909년(순종3)에 승녕부총관 조민희(趙民熙, 1859-1931)에게 하사한 심전 안중식의 그림으로 규장각경 조동희(趙同熙, 1856-1934)가 내사기內賜記를 썼다. 주연은 고종의 호이다. 내사기를 쓴 조동희는 영의정 조두순의 손자로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한제국기 의정부 찬정, 농상공부 대신, 규장각경 등을 지냈다. 작품을 하사받은 조민희는 조병익의 아들로 1885년 증광별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거쳐 법부 협판에 이르렀다. 특명전권공사로서 미국과 일본에 주재하였다. 본 작품은 기록을 통해 고종이 직접 명하여 심전 안중식이 그리고, 규장각경 조동희가 화제를 쓴 경위가 확인되며, 화면은 안중식 특유의 구도와 필법으로 가을날의 정취를 그리고 있다. 전경에 표현된 단풍이 든 나무 뒤로 정자와 날아드는 까마귀를 그려, 화제로 적은 시에 부합하는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안중식 필 노안도>[참고도판1]는 1909년 고종이 승녕부 부총관 박제빈(朴齊斌, 1858-1921)에게 하사한 것으로 본 작품과 마찬가지로 규장각경 조동희가 내사기를 썼다. 이와 더불어 승녕부 시종관 김춘희(金春熙, 1855-1926)에게 하사한 작품을 포함하여 3인에게 하사한 작품 중 하나이다. 본 작품은 고종의 명을 받아 안중식이 그렸다는 경위와 고종이 조민희에게 작품을 하사하는 정황 등이 내사기를 통해 확인되는 작품이다. 1910년 경술국치 직전인 1909년에 한일병합조약에 앞장선 조민희를 비롯한 이들에게 하사하고 있다. 당시 대한제국 막바지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미술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참고도판]

<안중식 필 노안도>, 1909, 비단에 수묵담채, 243.8×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2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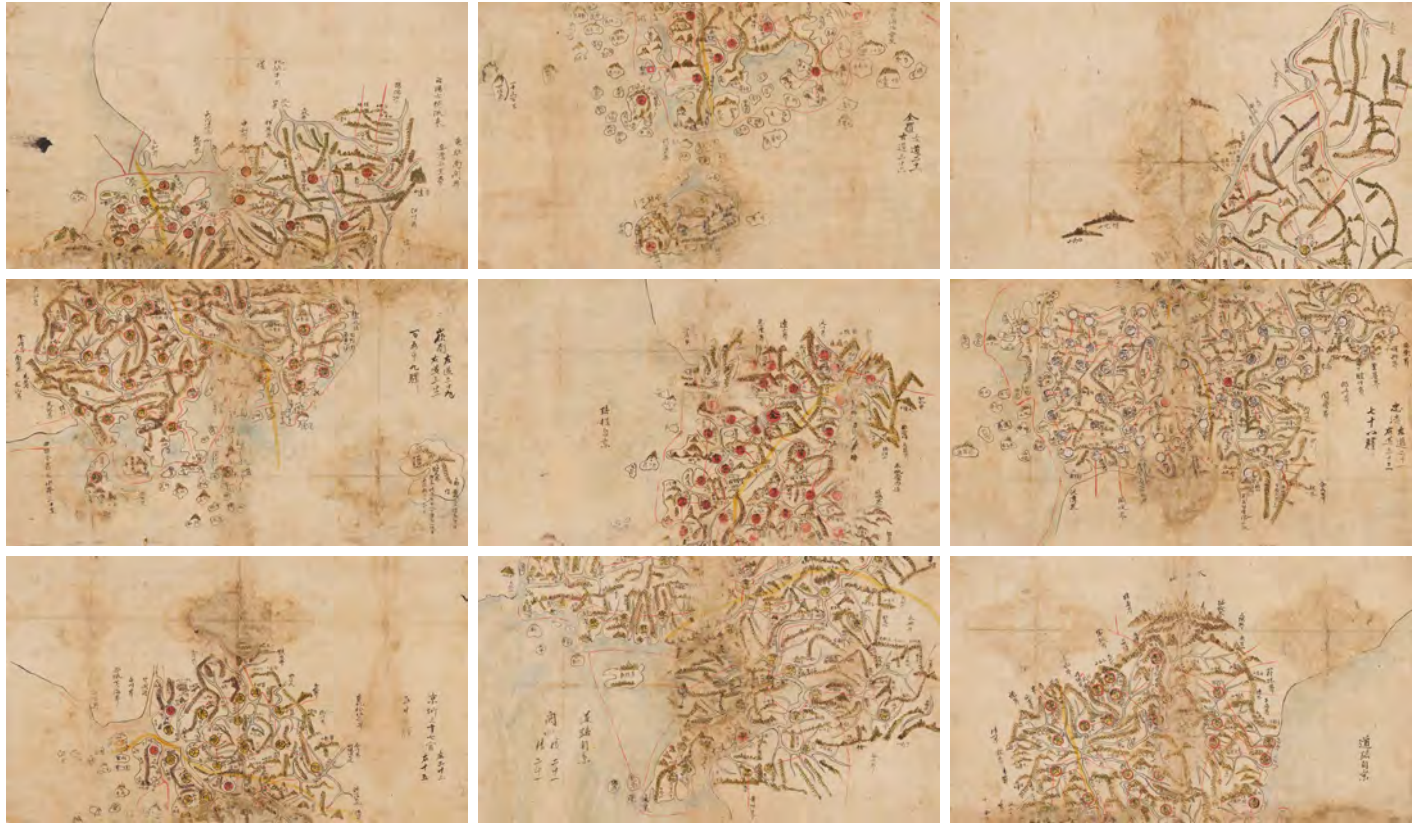


농포자 정상기 1678-1752
農圃子 鄭尙驥 Jeong SangGi

동국지도 외 지도 12점 東國地圖外地圖十二點 Map of Korea and Twelve Other Map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99×55cm 외

₩ 40,000,000-80,000,000





대한지지

大韓地誌

Daehan Jiji (Geography of the Korean Empire)

1906

책 Scrapbook

종이에 인쇄 Print on Paper

23×16cm

₩ 2,000,000-4,000,000



『대한지지大韓地誌』는 1895년 대한제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학부學部가 설치되면서, 학부에 의해 1899년 초간본이 발간되었고, 이후 1901년, 1905년, 1906년 재간행된 지리교과서이다. 이 중 1901년 본은 1책으로 합본되었으며, 1899년 본과 1906년 본은 1·2권, 1905년 본은 上·下 2책으로 구성되었다. 각 간행본은 내용의 체계와 형식은 동일하지만, 서술 내용은 시기별로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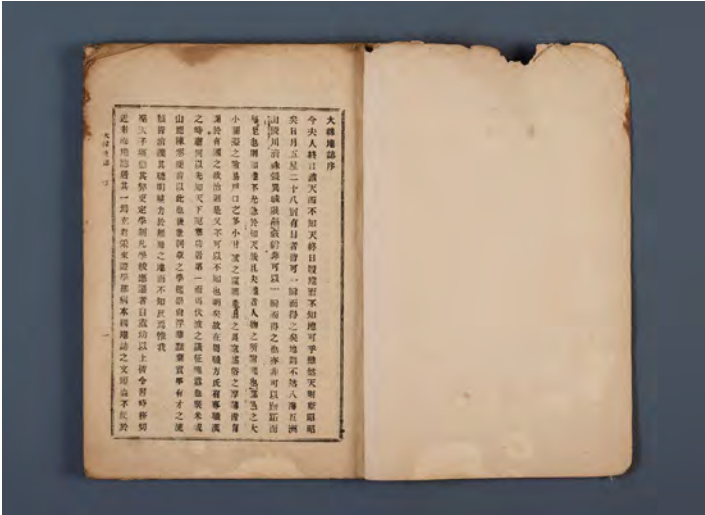
서문의 경우 1899년 본은 3면에 걸쳐 서술되었으나, 이후 간행본 3종은 서문 중 13자가 삭제되고, 2면에 걸쳐 24행으로 서술되어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1899년 본의 경우 ‘현재 편집, 김택형 이두형 참정(玄采 編輯, 金澤榮 李斗炯 參訂)’으로 편집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이후 간행본의 경우 ‘현재 역집(玄采 譯輯)’으로 수정되었다.

본 작품의 경우 1901년 이후 간행본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1권만이 현전하고 있어 1906년 간행본으로 생각된다. 1906년 간행본인 1·2권 전체내용은 14편과 대한전도, 도별도 13장이 첨부된다. 본 작품의 경우 1권만 현전하고 있으며, 7편까지의 내용과 대한전도, 도별도 6장이 첨부되어 있다.

『대한지지』는 기존 간행되었던 『조선지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서술되었다. 자주적 주권 회복을 위한 영토 인식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간행한 『대한지지』는 근대기 지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강창숙, 「근대계몽기 지리교과서 『大韓地誌』의 내용 체계와 서술 내용 변화 고찰」, 『문화역사지리』3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6.



최신고등대한지지

最新高等大韓地誌
Daehan Jiji (Geography of the Korean Empire)

1909
첩 Scrapbook
종이에 인쇄 Print on Paper
23×15.5cm

₩ 2,000,000-4,000,000

『최신고등대한지지最新高等大韓地誌』는 1909년 민족운동가였던 정인호(鄭寅琥, 1869-1945)가 편찬한 교과서이다. 정인호는 1906년 육호서림玉虎書林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교육을 통한 국권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최신고등대한지지』는 앞서 간행되었던 『대한지지』와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대한전도 및 도별도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의 지도, 한양의 산맥과 철도 등의 삽화 44종이 포함되었다.



금강산도 8폭병풍

金剛山圖八幅屏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of Mount Geumgang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54×34cm

₩ 12,000,000-24,000,000



[제8폭]
벽하담동구碧霞潭洞口



[제7폭]
비로봉毘盧峯
일출봉日出峯
혈망봉穴望峯
월출봉月出峯



[제6폭]
은적암隱寂菴
돈도봉頓道峯
삼불암三佛巖
백화암白華菴



[제5폭]
나옹상懶翁像
담무게曇无偈
보덕굴普德窟



[제4폭]
중향성衆香城
사자봉獅子峯
마하연麻訶衍
대향로봉大香爐峯
소향로봉小香爐峯
금강대金剛臺
만폭동滿幅洞
표훈사表訓寺
백천교百川橋



[제3폭]
만경대萬景臺
미근봉彌勤峯
낙안봉落鴈峯
명경대明鏡臺
시왕동十王洞
명연鳴淵



[제2폭]
시왕봉十王峯
백마봉白馬峯
단발령斷髮嶺
영은암靈隱菴
장경암長慶菴
장안사長安寺
비홍교飛虹橋



[제1폭]
영랑참永郎站
수미탑須彌塔
원통암元通菴
웅호봉熊虎峯
진불암眞佛菴
개심대開心臺
삼장암三藏菴
천일대天一臺
정양사正陽寺

전 복헌 **김응환** 1742-1789

傳 復軒 金應煥 Attributed to Kim UngHwan

산수화첩-복천동대 山水畫帖-福泉東臺 Landscape Album: Bokcheon Dongda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31.8×46.3cm

₩ 25,000,000-50,000,000

본 작품은 ‘복천동대福泉東臺’라는 화제가 있고, 화면의 내용 구성으로 보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복천암에 있는 수암화상탑, 학조화상탑 부근을 그린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은 필치와 화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 여항 문인들 가운데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와 절친했던 화원 복헌 김응환(復軒 金應煥, 1742-1789)이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가는 주제가 되는 승탑 부근을 내려다보듯이 포착하여 간결하게 그려냈다. 담채로는 기암괴석이 즐비한 원경을, 농묵의 미점으로는 울창한 토산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속리산의 특징적인 정경을 한 폭에 모두 그려내고 있다. 조선 후기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의 진경산수 화풍의 부흥과 명승을 화첩에 담아내는 기행 사경도紀行寫景圖의 유행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김홍도와 함께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직접 둘러보고 그려온 ‘봉명사경奉命寫景’으로 유명한 김응환이지만, 그의 현전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김응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해악전도첩>과 본 작품을 비교해보면, 소수의 인물들을 표현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으며, 기하학적 형태와 담채를 통한 바위 묘사 등은 질은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작품과 함께 출품되는 <산수화첩-능강동>은 충청북도 지역의 명소를 그린 단양팔경첩의 일부로 생각된다.



[참고도판]
보은 법주사 복천암 수암화상탑과 학조화상탑 전경(출처 국가유산청)

전 복헌 **김응환** 1742-1789

傳 復軒 金應煥 Attributed to Kim UngHwan

산수화첩-능강동 山水畫帖-凌崗洞 Landscape Album: Neunggangdong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31.8×46.3cm

₩ 25,000,000-50,000,000

본 작품은 ‘능강동凌崗洞’이라는 화제를 적고 있어 충청북도 제천시 능강계곡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능강계곡의 물길도 작품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흐른다. 본 작품은 기하학적 형태로 계곡의 바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각진 윤곽선으로 표현된 바위들은 계곡의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도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능강계곡



겸재 정선 1676-1759
謙齋 鄭敼 Jeong Seon

산수인물도 山水人物圖 Figures in a Landscap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44×24cm

₩ 60,000,000-150,000,000

謙齋 겸재

[인문] 鄭, 敼

겸재 정선은 금강산, 한양 근교 등 우리나라의 실제 명승지와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로 조선시대 산수화에 큰 변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화가이다. 본 작품은 겸재 정선의 산수인물도로 거대한 자연 속에 인물과 집이 일부로서 작게 그려지고 먹의 농담 변화 및 여백을 활용하여 고요하고 광활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주로 선비, 동자, 나귀를 탄 인물 등이 등장한다. 본 작품에서는 원경의 절벽과 바위, 근경의 나무 표현에서 정선만의 개성적인 미법이 잘 드러난다. 크고 작은 미점을 겹겹히 쌓아 표현하였고, 나무 줄기는 피마준법을 사용하여 긴 선으로 결을 살려 표현하는 등 다양한 준법을 사용하여 입체감과 질감을 살렸다. 화면 전체 분위기에서 정선 특유의 화풍이 잘 드러난다.



원교 이광사 1705-1777

圓嶠 李匡師 Lee GuangSa

시고 12폭병풍 詩稿十二幅屏風 Twelve-Panel Folding Screen of Poems

병풍 Folding Sc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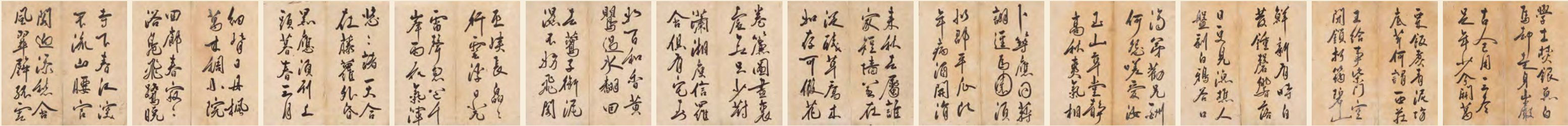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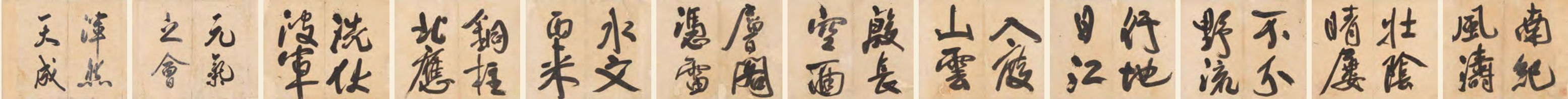
종이에 먹 Ink on Paper

上_각 27×34cm

下_각 28.3×28.7cm

₩ 8,000,000-16,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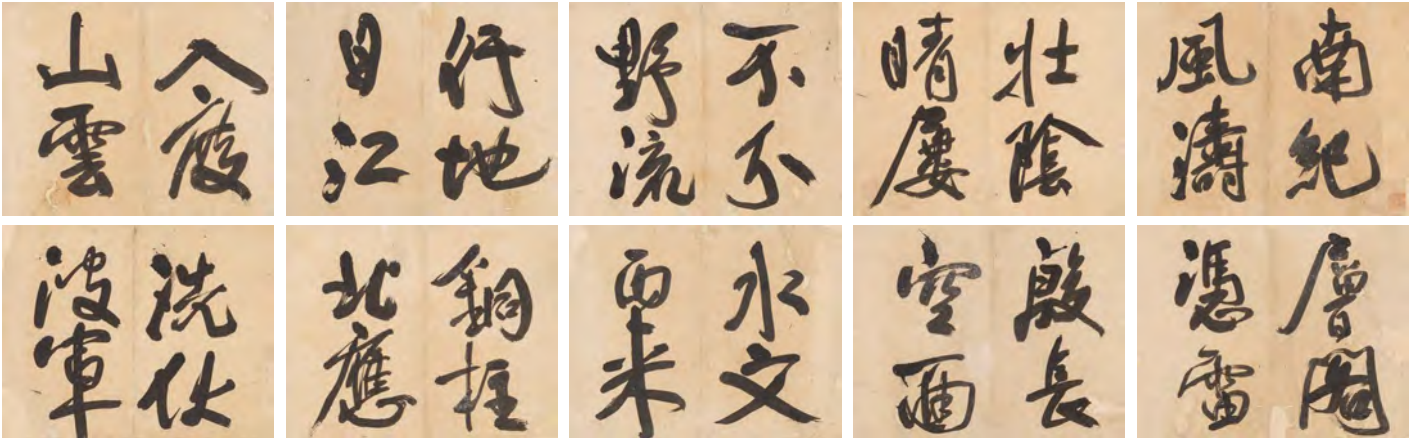
상단의 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6폭과 7폭은 순서가 바뀌었다.
하단의 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치되었다.





元氣之會 渾然天成 원기가 모여서 혼연히 천연으로 이루어졌네1)

1) 송나라 학자 정호(程顥, 1032-1085)의 인품을 송축하는 구절을 따로 떼어 쓴 것이다.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육선생상찬 명도선생六先生像贊明道先生〉에 “양기로 만물을 다습게 하듯 하고 산처럼 우뚝 섰으며, 옥빛처럼 아름답고 종소리처럼 쟁쟁했다. 원기가 한데 모여, 혼연히 천연으로 이루어졌도다. 상서로운 태양이요 상서로운 구름이며, 온화한 바람이요 단비와도 같도다. 용덕을 가지고 정중을 지키시니, 그 은택이 천하에 널리 퍼졌도다.[揚休山立, 玉色金聲. 元氣之會, 渾然天成. 瑞日祥雲, 和風甘雨. 龍德正中, 厥施斯普.]”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南紀風濤壯 남쪽 변방은 바람과 파도 장대하여
陰晴屢不分 맑고 흐림이 자주 분명치 않네
野流行地日 대지를 가로지르던 해는 들에 흐르고
江入度山雲 산을 넘어온 구름은 강으로 들어가네
層閣憑雷殷 층층 누각에 기대니 우렛소리 울리고
長空面水文 긴 허공을 마주하니 강물에 파문이 이네
雨來銅柱北 비가 동주의 북쪽에 내리니
應沈伏波軍 응당 북파의 군대를 씻겼으리¹⁾

1) 당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비 내리는 강가에서 출정하는 배어사를 생각하며[江閣對雨有懷行營裴二端公]>라는 시를 쓴 것이다.

寺下春江深不流 절 아래 봄 강물은 멈춘 듯이 깊는데
山腰官閣迥添愁 산 중턱의 관각은 멀어 시름을 더하도다
含風翠壁孤雲細 바람 머금은 푸른 절벽엔 외로운 구름 가늘고
背日丹楓萬木稠 햇살 등진 단풍잎은 온 숲에 조밀하네
小院回廊春寂寂 작은 절 굽은 회랑은 봄이 와도 고요하고
浴鳧飛鷺晚悠悠 먹 감는 오리와 나는 백로는 저녁에 한가롭네
諸天合在藤蘿外 암자는 응당 나무 덩굴 너머에 있으련만
昏黑應須到上頭 어두워진 뒤에나 겨우 꼭대기에 오르겠네¹⁾

1) 당나라 두보杜甫의 <부성현 향적사의 관사에서[涪城縣香積寺官閣]>라는 시를 쓴 것이다.

暮春三月巫峽長 늦은 봄 삼월이라 무협은 길기도 한데
晶晶行雲浮日光 희디 흰 구름이 햇살 속에 떠있도다
雷聲忽送千峯雨 우레소리 울리자 홀연히 봉우리 마다 비가 내리고
花氣渾如百和香 꽃 기운은 온통 백 가지를 향을 섞은 듯하도다
黃鸝過水翻迴去 물을 지나는 피꼬리는 날개를 뒤치며 지나가고
鷺子銜泥濕不妨 진흙을 물어오는 제비는 축축해도 개의치 않네
飛閣卷簾圖畫裏 높은 누각에서 주렴 걷으니 그림 속 풍경인데
虛無只少對瀟湘 넓게 트인 경치만은 소상강을 마주함만 못하도다²⁾

2) 당나라 두보의 <눈앞의 풍경[卽事]>라는 시를 쓴 것이다.

庾信羅含俱有宅 유신과 나함의³⁾ 집이 모두 강릉에 있었다는데
春來秋去作誰家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사이 누구의 집이 되었는가
短牆若在從殘草 낮은 담장이 아직 있다면 시든 풀이 무성할테고
喬木如存可假花 큰 나무가 남아 있다면 조화라도 꽃을 만하리라
卜築應同蔣詡逕 집을 지으면 장후처럼⁴⁾ 세 갈래 오솔길 내고
爲園須似邵平瓜 텃밭을 가꾸면 소평처럼⁵⁾ 참외도 심어 보리라
比年病酒開涓滴 요즘은 병 때문에 술을 몇 방울만 마시지만
弟勸兄酬何怨嗟 아우와 형이 주고받는다면 무슨 원망과 한숨이 있으랴⁶⁾

3) 유신(庾信, 513-581)은 북주北周의 유명한 시인이다. 후경의 난(侯景之乱, 548)을 당해 강릉江陵으로 도망쳐 피신하였으며, 높은 관직에 오른 뒤에도 늘 고향을 생각하며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어 노래하였다고 한다. 나함(羅含, 292-372)은 어릴 때부터 시문詩文에 재능이 뛰어났다. 나함이 환온桓溫의 별가

別駕로 있을 때, 형주荊州의 강릉江陵 서쪽 소주小洲 위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던 고사가 있다.

- 장후(蔣翊, ?-?)는 한나라 때 은사隱士이다. 장후가 일찍이 자기 집안에 세 오솔길을 내놓고 구중(求仲, ?-?)과 양중(羊仲, ?-?) 두 사람하고만 이곳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 소평(邵平, ?-?)은 진나라 때 동릉亭東陵侯에 봉해졌는데, 진나라가 멸망하자 일개 포의布衣가 되어 장안長安 성문 동쪽에서 참외를 심어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참외가 맛이 좋아 세상에서는 동릉과東陵瓜라고 불렀다고 한다.
- 당나라 두보杜甫의 <동생 부관이 남전에 도착해서 처자를 얻어 강릉에 도착했다는 기쁨에 부친 시 3수[舍弟觀赴藍田取妻子到江陵喜寄三首]> 중의 세 번째 시를 쓴 것이다.

愛汝玉山草堂靜 그대의 옥산 초당이 고요하여 사랑하노니
高秋爽氣相鮮新 높은 가을 상쾌한 기운과 어울려 신선하구나
有時自發鐘磬響 때로 종소리 경쇠소리 스스로 들려오고
落日更見漁樵人 해저물 땀 어부와 나무꾼을 다시 만나네
盤剝白鴉谷口栗 쟁반에는 백아목 입구의 밤을 깎아 놓고
飯煮青泥坊底芹 소반에는 청니방 아래의 미나리를 데쳤다네
何爲西莊王給事 어찌하여 서쪽 장원의 왕유 급사중계서는
柴門空閉鎖松筠 사립문 닫아걸고 소나무와 대나무로 가렸는가⁷⁾

7) 당나라 두보杜甫의 <최씨의 동산초당[崔氏東山草堂]>이라는 시를 쓴 것이다. 최씨는 왕유(王維, 699-761)의 외숙의 아들인 최계중(崔季重, ?-?)으로 왕유의 당친朝川 별장과 동서로 이웃하고 있었다고 한다.

碧山學士焚銀魚 푸른 산에 살던 학사가 은어 부절을 불태우고
白馬却走身岩居 백마 탄 장수에 쫓겨 바위굴 속으로 들어갔네
古人已用三冬足 고인들은 겨울 석달을 꼬박 책을 읽었는데
年少今開萬卷餘 연소한 그대는 지금 만권을 넘겨 읽었다지⁸⁾

8) 당나라 두보杜甫의 <백학사의 모옥[柏學士茅屋]>이라는 시의 절반만 쓴 것이다. 백학사柏學士는 안녹산의 난(安祿山之亂, 755-763)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산림에 은거한 은자로 두보가 백 학사의 초옥草屋을 지나며 인품이 높고 독서가 깊은 그를 흠모하여 지은 시라고 한다. 巖 뒤에 ‘居’가 누락되었고, 마지막 萬 뒤에 ‘卷餘’부터는 생략되었다.

書_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題_ 무호 이한복 1897 -1944
無號 李漢福 Lee HanBok

글씨 書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47×12cm

₩ 8,000,000-30,000,000

心則虛靈而善應 마음은 텅 비어 영험하기에 잘 호응하고
意有定向而中涵 뜻은 정해진 방향이 있어야 가슴에 함양된다.¹⁾

精藏氣定 智發心安 정精이 간직되어 기氣가 안정되며, 지智가 발하여 심心이
평안해진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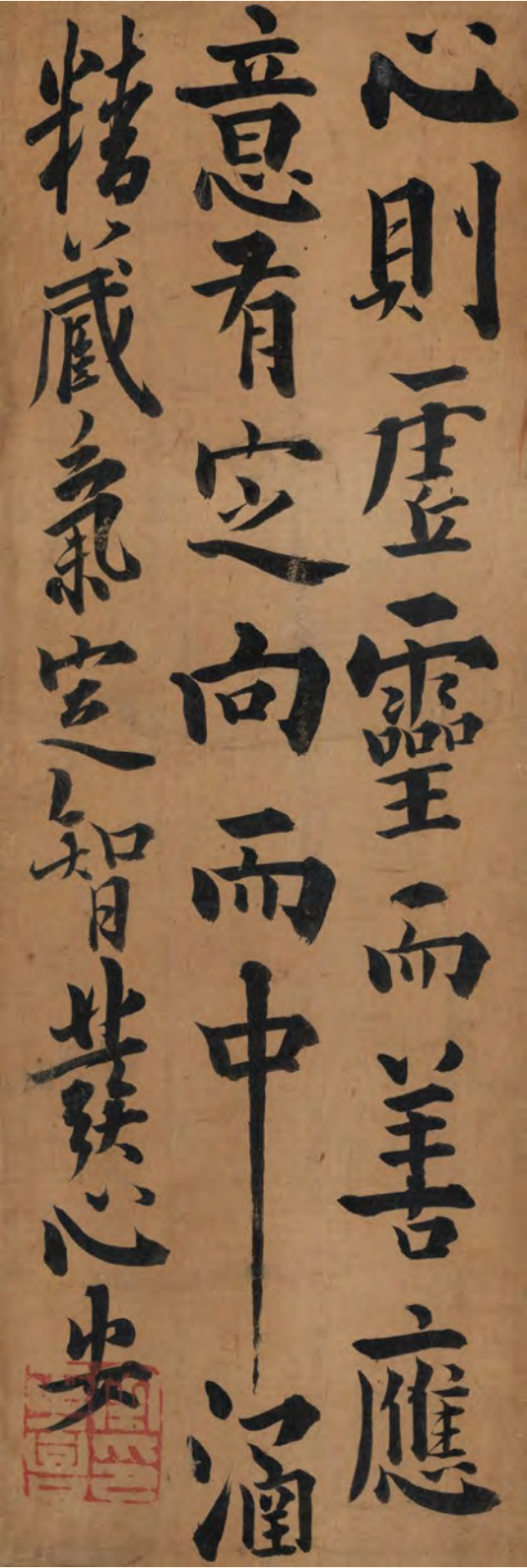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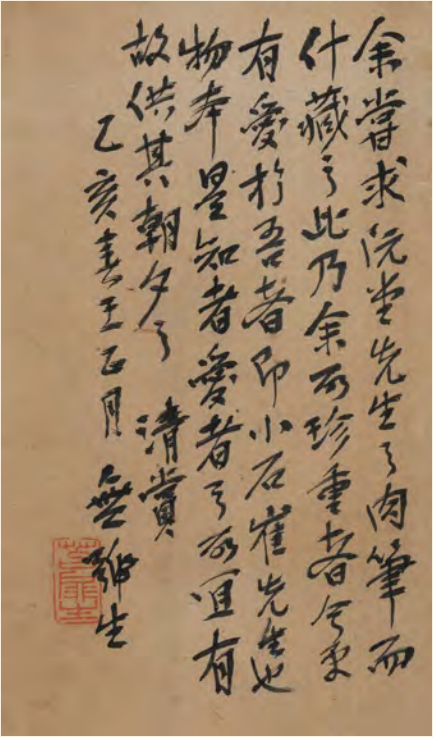
[인문] 金正喜印

- 1) 명나라 유학자 왕등(王棟, 1502-1581)이 제기한 학설 중의 한 구절이다.
2) 명나라 양명학자 임춘(林春, 1498-1541)이 자신의 평소 생활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에 나온다.

余嘗求阮堂先生之肉筆, 而什藏之. 此乃余所珍重者, 今更有愛於吾者, 卽小
石崔先生也. 物本是知者愛者之所宜有, 故供其朝夕之清賞.
내가 일찍이 완당선생의 육필을 구하여 소장하였다. 이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
인데, 지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소석小石 최선생崔先生이
다. 물건이란 본래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아침저
녁으로 완상하시라고 드린다.

乙亥春王正月, 無號生 을해년(1935) 봄 1월, 무호생

[인문] �廐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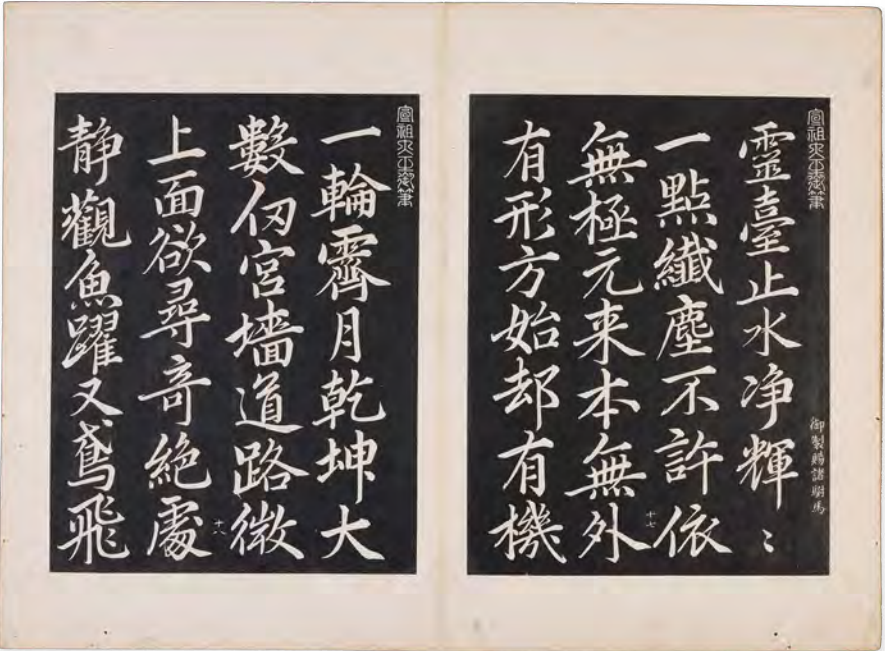


열성어필

列聖御筆
Royal Calligraphy of Kings

첩(32면) Album of Calligraphy
종이에 목판 Woodblock print on Paper
29.5×22cm

₩ 5,000,000-10,000,000



영친왕 이은 1897-1970

英親王 李垕 Lee Un

자화산방 紫華山房 Calligraphy

1904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7×104cm

₩ 4,000,000-10,000,000

紫華山房 자화산방
英王八歲書 영왕 8세에 쓰다.

[인문] 玉壺冰心, 英親王印, 翰墨清緣

영친왕(英親王, 1897-1970)의 본명은 이은李垕으로 고종의 7번째 아들이며 순종의 이복동생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1900년 8월에 영왕英王에 봉해졌고, 1907년 11세의 나이로 덕수궁에서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1920년 4월 일본 황실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오우[梨本宮守正王, 1874-1951]의 만달인 마사코(方子, 1901-1989; 훗날 이방자)와 정략결혼을 하여 일본에서 생활했다.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면서 56년 만에 부인 이방자와 함께 환국했다.



석연 양기훈 1843-1911
石然 楊基薰 Yang GiHun

노안도 12폭병풍 蘆雁圖十二幅屏風
Twelve-Panel Folding Screen of Geese and Reeds
1907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114×388cm

₩ 40,000,000-80,000,000



霜落秋江鏡面開 서리 내린 가을 강은 거울같이 열렸는데
群飛天末等閒回 떼로 날아 하늘 끝에서 무심히 돌아오네
紅樹暮雲聲斷續 단풍 숲 저문 구름에 울음소리 끊어졌다 이어지고
碧波寒月影徘徊 푸른 물결 찬 달빛 아래 그림자 오락가락 하네
隨陽不是謀梁去 햇살을 따름이 아니고 모이 탐해 떠나갔다가
遵渚應知避弋來 물가를 따름은 응당 화살을 피해 오는 것이리
啼時莫近長安夜 울려거든 장안성 밤에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萬戶清砧爲爾催 수많은 집의 다듬이 소리가 너 때문에 재촉하리¹⁾
時維丁未臘平日 三江漁人楊石然 때는 정미년(1907) 납평일, 삼강어인 양석연
亦啖 이 또한 보고 웃어주시기를

[인문] 四時口, 石然, 楊基薰印

1) 조선 초기의 문신 최세절(崔世節, 1479-1535)이 지은 <안자시雁字詩>로 전해진다.



Lot.074
옷칠음각송록문함
漆陰刻松鹿紋函
Lacquered Box with Incised Pine and Deer Design

Lot.060
목안
木雁
Wooden Wild Goose

027

가응도 대련

架鷹圖對聯
Pair of Hawks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각 80×57cm

₩ 8,000,000-16,000,000



028 전 이택균 1808-1892

傳 李宅均 Attributed to Lee TaekGyun

책가도 6폭 冊架圖六幅 Chaekgado, Six-Panel Set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37×278cm

₩ 250,000,000-500,000,000





본 작품은 서책과 화첩, 고동기와 여러 기물들을 그린 책가도로 6폭이 현전한다. 현전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폭 상단에는 은인隱印이 두 과가 그려져 있다. 그 하단으로 삼죽쌍이향로를 비롯한 단색유자기, 가요자기, 옥경, 두루마리와 문방구 등이 그려져 있다. 2폭 상단은 서책들이 빼곡이 그려졌으며, 그 하단으로 공작깃과 주전자, 자기들과 필첩 등이 그려져 있다. 가장 하단은 서책들로 채워져 있다. 3폭은 상단과 하단 모두 서책으로 채워져 있으며, 중단에는 잉어육기와 모란, 자기들이 표현되어 있다. 4폭과 5폭은 하단 기물의 형태로 보아 두 폭의 순서가 본래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폭과 5폭 하단에는 산호걸이와 가요자기에 담긴 국화 등이 그려져 있다. 국화 우측 옆 녹색 자기는 두 폭에 걸쳐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6폭에는 불수감이 담긴 자기와 서책, 인장 등이 그려져 있다. 본 작품의 1폭 상단에 그려진 은인의 내용은 명확히 판독이 어렵지만, 작품에 그려진 기물들의 양식을 통해 보면 이택균(李宅均, 1808-1892, 초명 이형록李亨祿, 1864년 이응록李膺祿 개명, 1871년 이택균 개명) 시기에 그려진 기물들과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숭아 반쪽 형태의 필첩은 현전하는 책가도 작품 중에서도 이택균 시기에 그려진 작품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뷰쉬라 타시, 「松石 李亨祿의 冊架圖와 文房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24.



[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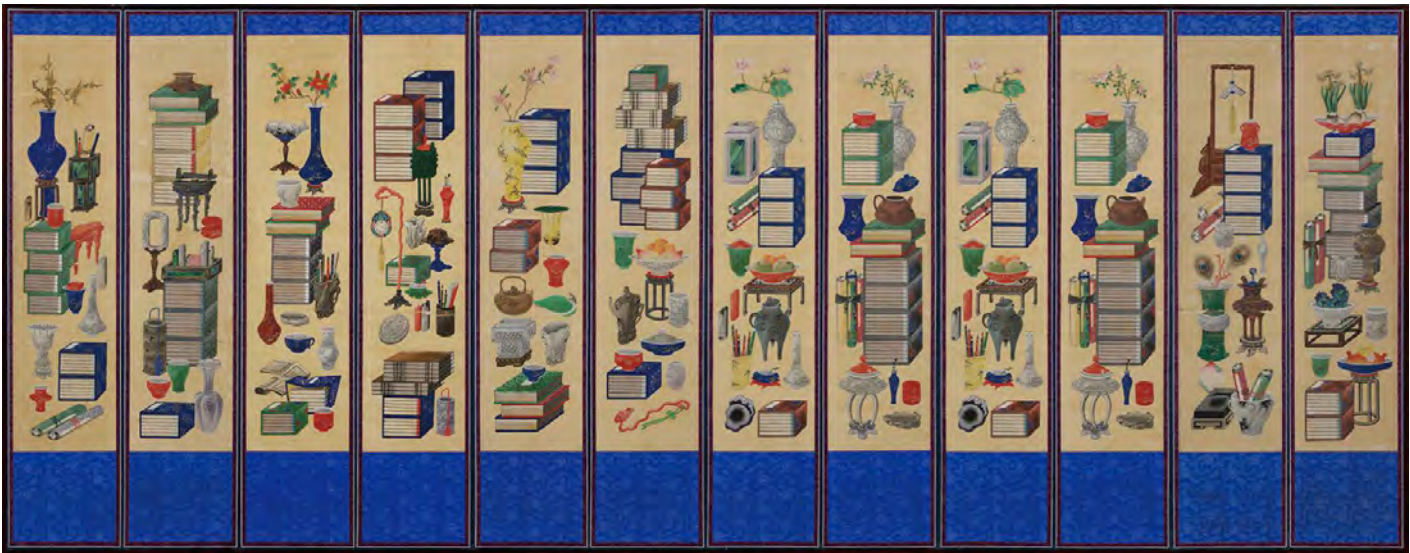
[참고도판 1] 부분



[참고도판 2] 부분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1. 이택균, 책가도 10폭병풍, 비단에 채색, 290×417.8cm,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2. 이택균, 책가도 10폭병풍, 종이에 채색, 각 150×37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곽분양행락도 6폭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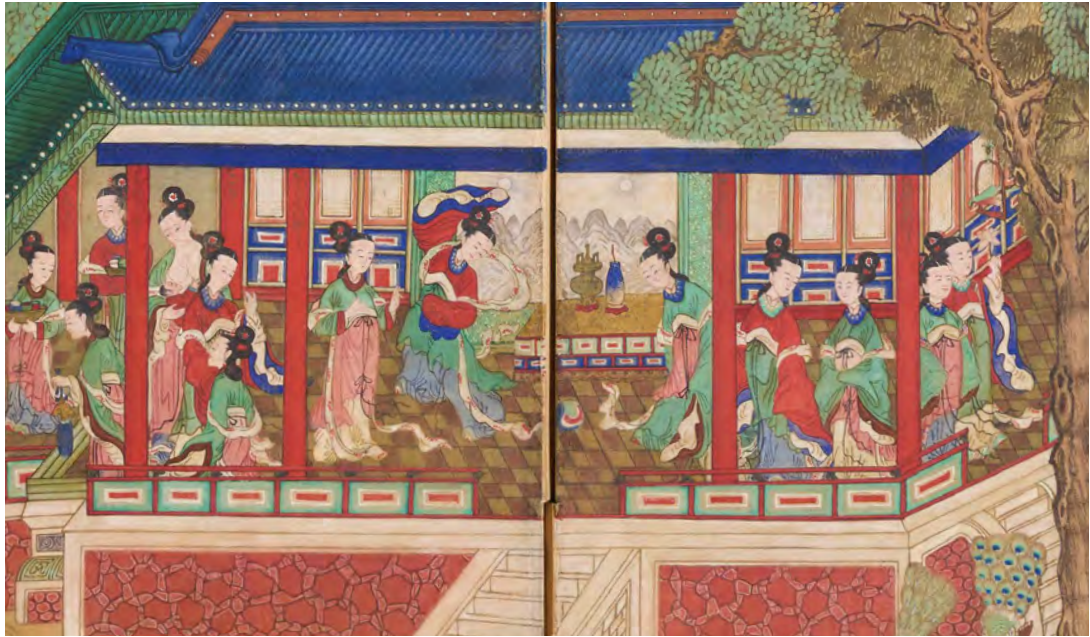
郭汾陽行樂圖六幅屏風
Six-Panel Folding Screen of Guo Ziyi's Banquet

병풍 Folding Screen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166.5×392cm

₩ 120,000,000-250,000,000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는 당나라 장수 곽자의(郭子儀, 697-781)가 가족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대한 연회 장면을 그린 궁중장식화이다. 곽자의는 안록산(安祿山, 703-757)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져 ‘곽분양’이라 불렸다. 두 차례 재상을 지냈으며 장수와 임신양명, 자손의 번영을 모두 누려 후대에는 부귀공명과 다복多福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의 이야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될 만큼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알려졌다. ‘곽분양행락도’라는 화제는 숙종의 글을 모은 『열성어제列聖御製』에서 확인된다.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은 <곽자의행락도>를 세자에게 내리며 곽자의와 같이 만복과 장수를 누리기를 기원하였다. 이를 통해 늦어도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는 조선 왕실에서 이 화제가 병풍으로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곽분양행락도>는 주로 화려한 궁중채색화 병풍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19세기 이후 왕실 혼례에 널리 사용되었다. 왕비나 세자빈으로 간택된 인물이 혼례 전 머물던 별궁에 설치되어 부귀와 장수,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030

황룡도

黃龍圖

Dragon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59×99cm

₩ 15,000,000-30,000,000



031

백동자도 10폭병풍

百童子圖十幅屏風
Ten-Panel Folding Screen of One Hundred Childr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각 127×36.5cm

₩ 25,000,000-5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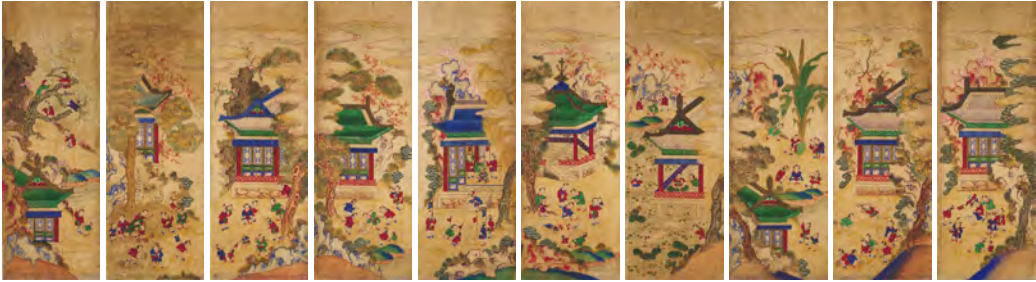


백동자도는 천진한 아이들의 유희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자손 번성, 다남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백동자도는 명대 『봉신연의封神演義』에서 주 문왕이 24명의 부인과 9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뇌진자雷震子를 연산燕山에서 얻어 100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동자도의 조선 유입은 청대 화가 맹영광(孟永光, 1590-1648)이 효종에게 헌상하였다는 조선 후기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맹영광백동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백동자도 속 유희는 연꽃따기, 닭싸움, 나비잡기, 풀싸움, 귀뚜라미 싸움, 원숭이 희롱, 매화따기 등으로 청대 이후 그려진 백동자도 병풍의 소재와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 조선에서 백동자도는 다남의 길상성으로 여성의 공간이나 혼인과 관련해 다수 제작되었다. 18세기 후반에 백동자도는 궁중 가례용 병풍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장대한 구성을 연폭連幅으로 제작되었고, 그 이후 민간 혼례에 개별 화폭에 각각의 유희 활동을 그려 구성한 병풍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본 작품은 민간에서 사용된 개별 화폭에 그려진 백동자도 10폭 병풍이다. 화면에는 전각과 오색구름이 드리운 환상적인 정원 풍경을 배경으로 동자들의 놀이장면을 화려한 채색으로 표현하였다. 각 폭에서 절기 풍속에서 유래한 다양한 놀이를 알 수 있다. 1폭은 책 읽기, 2폭 닭싸움, 3폭 잠자리 잡기, 4폭 매화 따기, 5폭 연지 물놀이, 6폭 장군놀이 행렬, 7폭 원숭이 희롱, 8폭 악기 연주, 9폭 팽이치기, 10폭 연날리기 장면이다. 잠자리 잡기는 2월 15일 화조절에 행했던 나비잡기의 변형으로 보인다. 원숭이 유희는 중국의 상원절 풍속에 등장하지만, 조선 백동자도에만 묘사되었던 특징이 있다. 책 읽기는 문과 급제를, 장군놀이는 무과급제를 바라는 어른들의 역할을 아이들의 놀이로 표현되어 과거급제, 입신양명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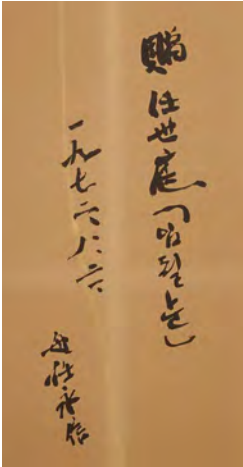
[참고문헌]

1. 문선주, 「백동자(百童子), 절기(節氣)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놀이하다」, 『조선, 병풍의 나라』 기획전 도록,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2. 유정서, 「조선후기 백자도 : 도상의 형성과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참고도판]

<백동자도 10폭>, 종이에 채색, 각 92.7 x 32.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희 4207).



작품의 배면에는 엄마 임영신(任永信, 1899-1977)이 양아들 임철순任哲淳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구장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임영신은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46년에는 중앙여자대학을 설립, 이후 중앙대학교의 학장과 초대 총장 등을 지냈다. 1948년에는 상공부장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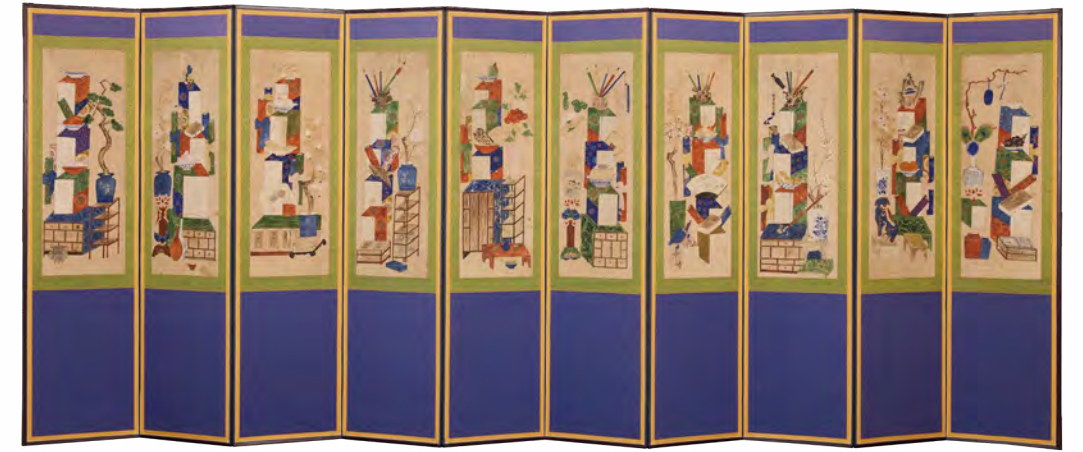
책거리 10폭병풍

冊巨里十幅屏風
Chaekgeori, Ten-Panel Folding Screen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각 79.5×30cm

₩ 60,000,000-120,000,000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八幅屏風
Eight-Panel Folding Screen of Birds and Flowers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각 77×41.7cm

₩ 5,000,000-10,000,000



벽은 이도희 1906-1988

碧隱 李道熙 Lee DoHui

부부초상화 夫婦肖像畫 Portraits of a Couple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男_101.2×43.8cm

女_99.6×44cm

₩ 8,000,000-16,000,000



碧隱寫 벽은 그리다.

[인문] 碧隱, 李道熙印



碧隱寫 벽은 그리다.

[인문] 碧隱, 李道熙

전영택 외 26인 1894-1968

田榮澤 外 26人 Jeon YeongTaek and 26 Others

근현대 문학가 27인 육필원고

近現代文學家二十七人肉筆原稿

Handwritten Manuscripts by 27 Modern and Contemporary Wri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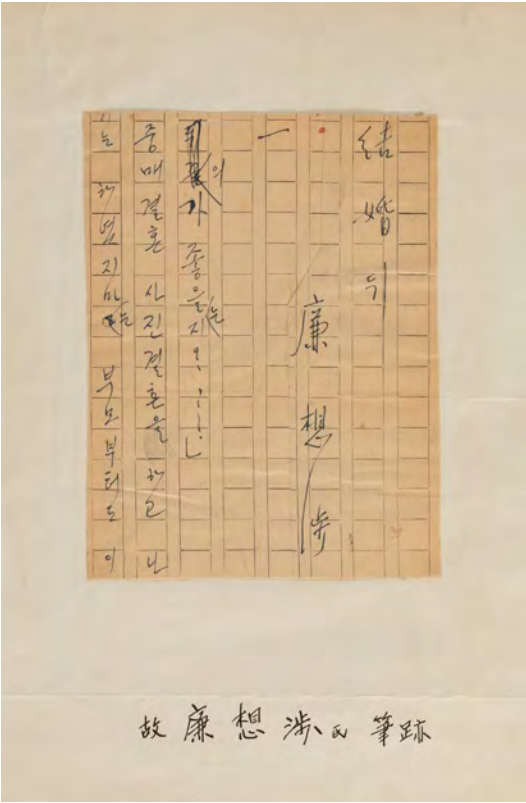
종이에 잉크 Ink on Paper

18.5×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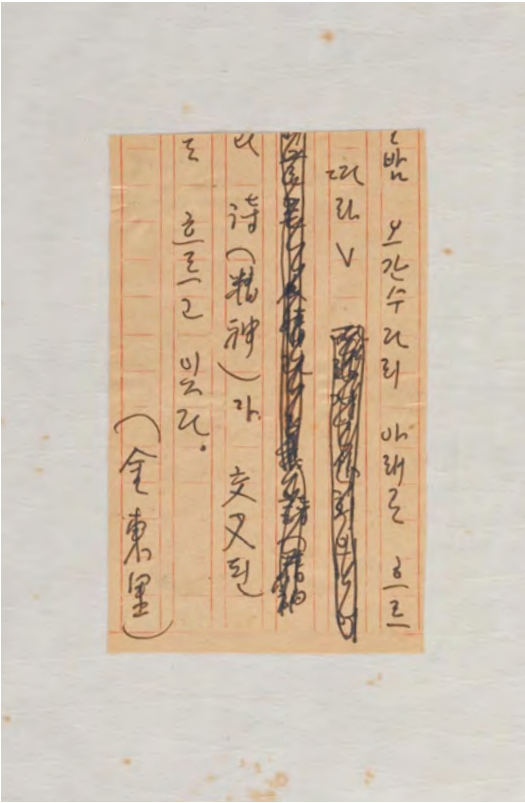
₩ 20,000,000-4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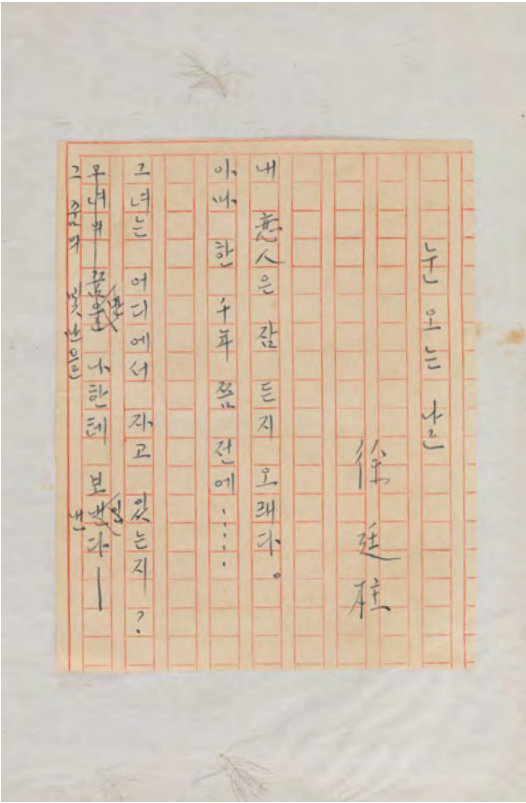
전영택(田榮澤, 1894-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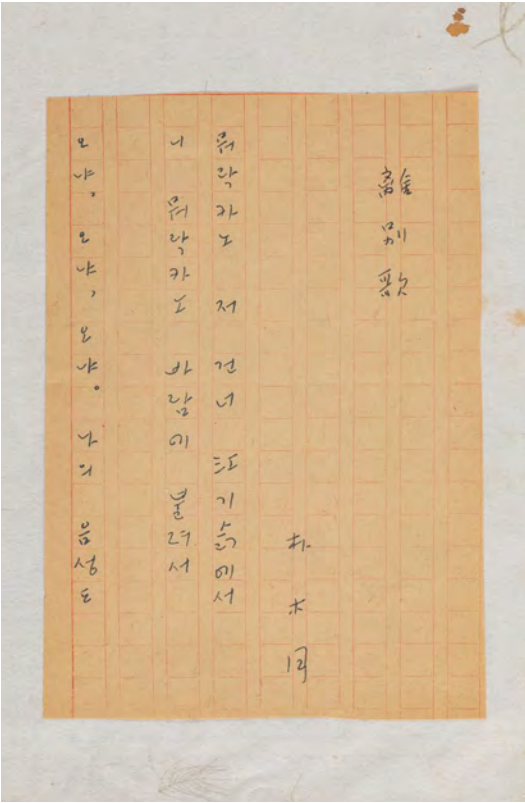
염상섭(廉想涉, 1897-1963) <결혼 뒤>, 《현대문학》57,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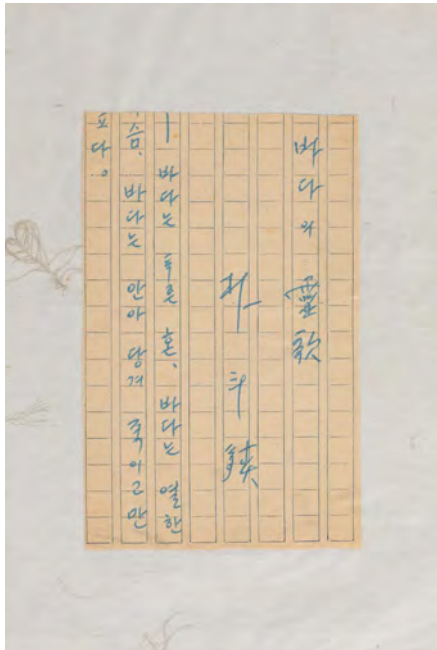
김동리(金東里, 191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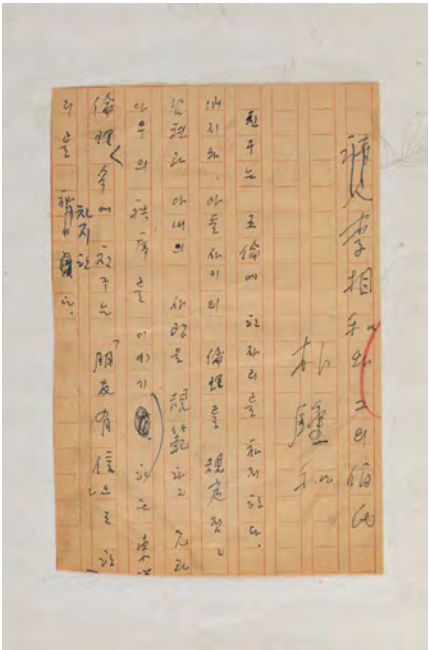
서정주(徐廷柱, 1915-2000) <눈 오시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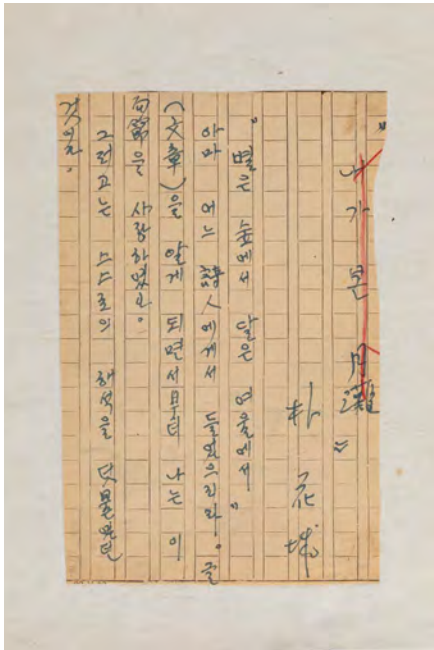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이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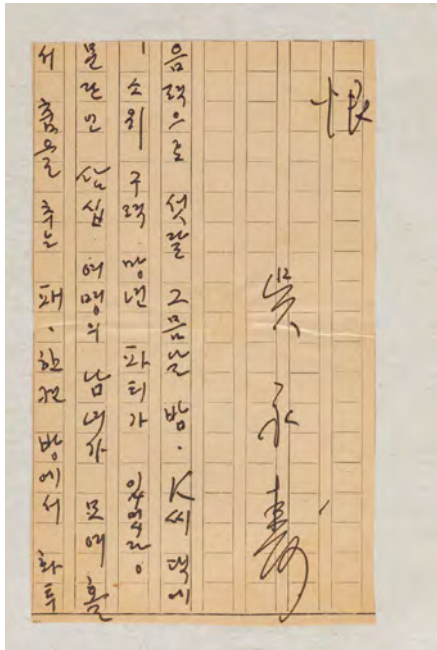
박두진(朴斗鎭, 1916-1998) <바다의 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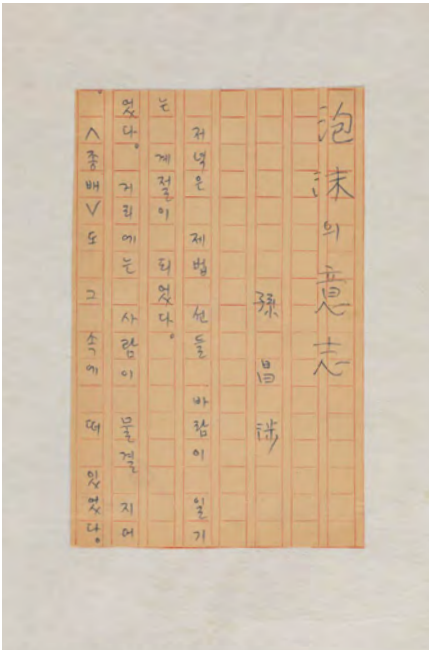
박종화(朴鍾和, 1901-1981) <이상화와 그의 백씨>, 《현대문학》97,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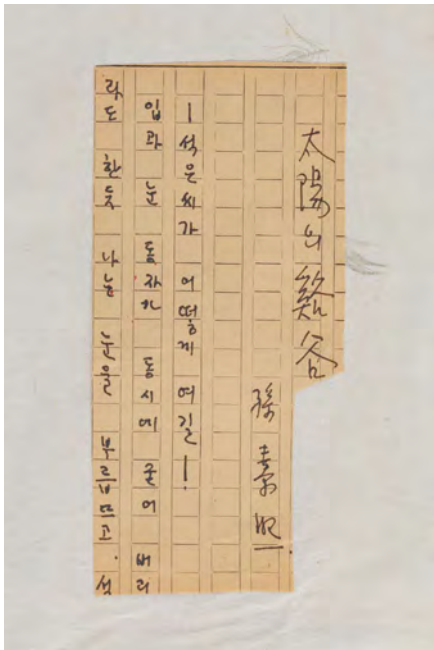
박화성(朴花城, 190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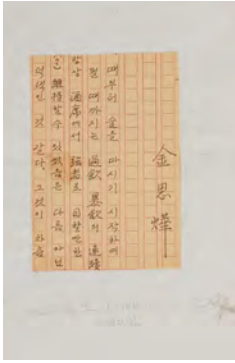
오영수(吳永壽, 1909-1979) <한恨>, 《현대문학》62,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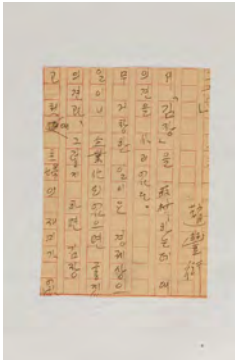
손창섭(孫昌涉, 1922-2010) <포말의 의지>, 《현대문학》59,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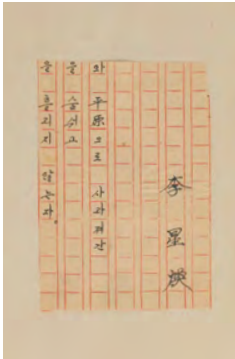
손소희(孫素熙, 1917-1987) <태양의 계곡>



김사엽(金思燁, 1912-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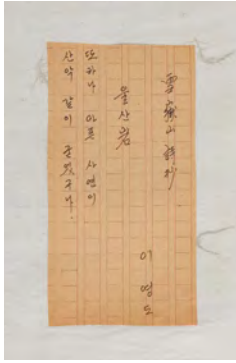
조풍연(趙豐衍, 1914-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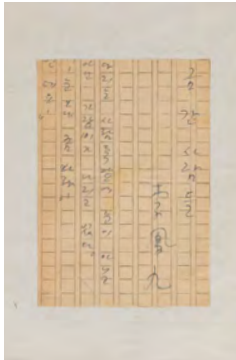
이성환(李星煥, 1936-1966)



고두동(高斗東, 1903-1994) <태풍·수평>, 《현대문학》58,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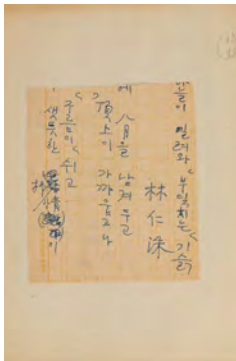
이영도(李永道, 1916-1976) <설악산시초>, 《현대문학》57,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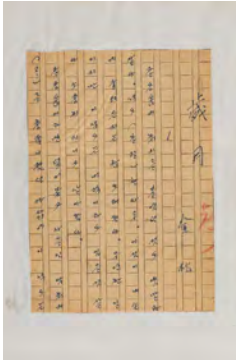
이봉구(李鳳九, 1916-1983) <금 간 사람들>, 《현대문학》62,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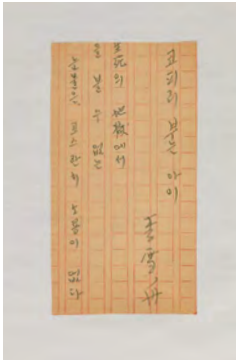
이원섭(李元燮, 1924-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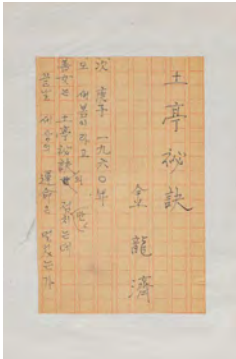
임인수(林仁洙, 1919-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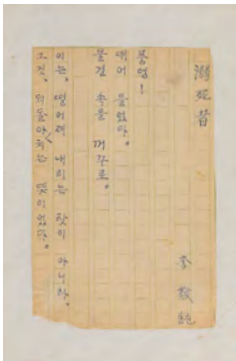
김송(金松, 1909-1988) <세월歲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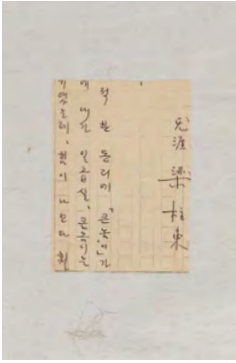
이설주(李雪舟, 1908-2001) <코피리 부는 아이>, 《현대문학》57,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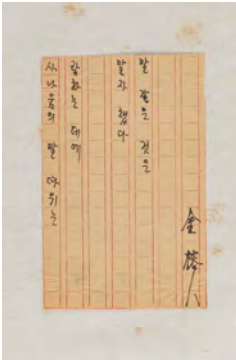
김용제(金龍濟, 1909-1994) <토정비결土亭秘訣>, 《현대문학》63,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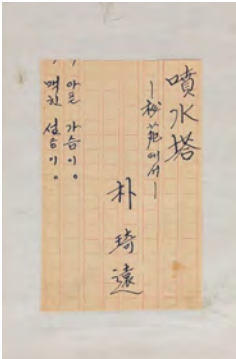
이경순(李敬純, 1905-1985) <익사자>, 《현대문학》82,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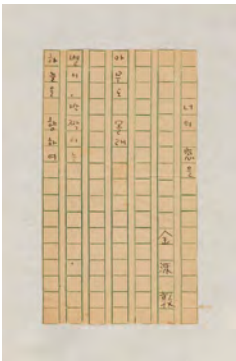
양주동(梁柱東, 1903-1977)



김용팔(金榕八, 1914-2005)



박기원(朴琦遠, 1908-1978) <분수탑>, 《현대문학》58, 1959.



김수돈(金洙敦, 1917-1966)



PART 2

도자

陶磁

CERAMICS

Lot.036 - 057

036

백자청화칠보문화장기 2점

白磁靑畫七寶紋化粧器二點
A Set of Two Blue and White Porcelain Cosmetic Containers

左_高 3 口徑 2 底徑 2.3
右_高 3 口徑 2 底徑 2.5

₩ 3,000,000-6,000,000



037

백자동화초문소병,
백자청화연화문소호

白磁銅畫草紋小瓶, 白磁靑畫蓮花紋小壺
White Porcelain Small Bottle with Copper-red Decoration
and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瓶_高 8 口徑 2.5 底徑 3
_高 3 口徑 2.5 底徑 3

₩ 2,000,000-4,000,000



038

청자철화퇴화국화문유병

靑磁鐵畫堆花菊花紋油瓶
Celadon Bottle with Iron-Painted and White Slip Decoration

高 5.5
口徑 1.2
底徑 3

₩ 1,500,000-3,000,000



039

청자퇴화국화문유병

靑磁堆花菊花紋油瓶
Celadon Bottle with White Slip Decoration

高 7.5
口徑 3
底徑 5

₩ 3,000,000-6,000,000



040

분청사기덤방잔

粉靑沙器덤방盞
Buncheong Cup with Dipped White Slip Decoration

高 5
口徑 8.5
底徑 4.3

₩ 3,000,000-6,000,000



041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粉靑沙器鐵畫唐草紋壺
Buncheong Jar with Iron-Painted Decoration

高 10
口徑 9
底徑 5

₩ 4,500,000-9,000,000



043

백자청화매죽문병

白磁靑畫梅竹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15.4
口徑 2.5
底徑 6.5

₩ 4,000,000-8,000,000



044

백자청채음각화문병

白磁靑彩陰刻花紋瓶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obalt-Blue Glaze
and Incised Decoration

高 17
口徑 3
底徑 6.5

₩ 3,000,000-6,000,000



045

백자청화운룡문병

白磁靑畫雲龍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30
口徑 7
底徑 12.5

₩ 8,000,000-16,000,000



046

청자철채선문유병

靑磁鐵彩線紋油瓶
Celadon Bottle with Iron-Brown Slip Decoration

高 7.4
口徑 3.2
底徑 4.3

₩ 50,000,000-100,000,000



청자로 만든 작은 유병이다. 약간 외반된 구연에서 짧고 가는 경부로 이어지며, 아래로 갈수록 풍만하게 벌어진 둥근 동체와 낮은 굽을 갖춘 형태이다. 구연부를 제외한 기면 전반에는 철채를 입혀 번조하였으며, 동체에는 가느다란 선문을 시문하여 철채 아래로 청자 유색이 드러나도록 장식한 점이 특징적이다. 구연부에 드러난 색은 은은하고 맑은 청록빛이며, 유면 또한 비교적 매끄럽게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동체는 짙은 철채의 색감과 선각 장식이 어우러져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낸다. 특히 선문은 상동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정형화된 문양보다는 즉흥적이고 추상적인 감각이 두드러져 현대적인 미감마저 느끼게 한다. 굽 하단에는 번조 시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던 흔적이 확인되며, 굽 안쪽까지 철채가 이어진다. 작은 기형임에도 철채와 선문의 대비, 비색 청자의 부분적 노출이 조화를 이루어 고려청자 장식 기법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수록처]
- 1. 조선관요박물관, 『청자靑磁의 색형色形』, 2005.
 - 2. 포스코미술관, 『天機漏洩 高麗翡色』,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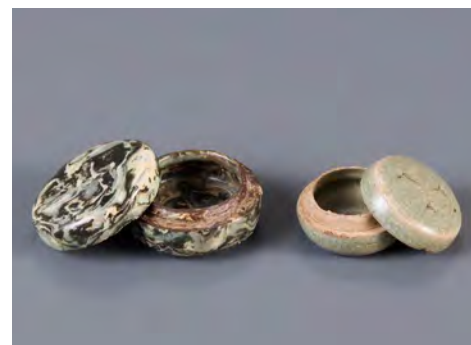
047

청자상감국화문합, 청자연리문합

靑磁象嵌菊花紋盒,靑磁練理紋盒
Celadon Lidded Box with Inlaid Decoration and
Celadon Lidded Box with Marbled Decoration

菊花紋盒_高 2.5 口徑 4 底徑 2.6
練理紋盒_高 2.4 口徑 3.3 底徑 2.2

₩ 2,000,000-4,000,000



048

청자상감운학문완

靑磁象嵌雲鶴紋碗
Celadon Bowl with Inlaid Decoration

高 8
口徑 19
底徑 7

₩ 3,000,000-6,000,000



049

청자음각초화문주자

靑磁陰刻草花紋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Decoration

高 18.3
口徑 4.1
底徑 9.5

₩ 30,000,000-60,000,000





[수록처]
1. 조선관요박물관, 『청자靑磁의 색형色形』, 2005.
2. 포스코미술관, 『天機漏洩 高麗翡色』, 2024.



050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磁象嵌菊花紋盒
Celadon Lidded Box with Inlaid Decoration

高 8
口徑 5
底徑 3

₩ 10,000,000-20,000,000



분청사기상감수파어문장군

粉靑沙器象嵌水波魚紋獐本
Buncheong Barrel-Shaped Bottle with Inlaid Decoration

高 20
口徑 5.3
底徑 8

₩ 80,000,000-160,000,000

동체의 넓은 양면을 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입에서 물을 내뿜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상감하였다. 물고기 주변에는 활달한 선으로 표현한 파도문을 가득 채워 생동감 있는 수중 장면을 구성하였다. 화면 중앙의 양옆에는 파도문을 상감한 문양대와 국화문을 인화한 문양대를 차례로 배치하였으며, 동체 양 끝의 둥근 면에도 형태와 표현을 달리한 파도문을 빼곡하게 장식하였다. 다양한 파도문의 구성과 개성적인 문양대의 배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분청사기박지모란문유개호

粉靑沙器剝地牡丹紋有蓋壺
Buncheong Lidded Jar with Sgraffito Decoration

高 52
口徑 14
底徑 17

별도문의

풍만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아래로 완만히 좁아지는 몸체에 짧은 목을 세우고,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는 분청사기호이다. 뚜껑과 어깨에는 길게 뺀 연판문을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어깨 아래에는 파상문波狀紋을 둘러 중심 문양과 구분하였다. 동체 전면에는 활짝 핀 모란과 넓게 펼쳐진 잎을 큼직하게 배치하여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백토를 입힌 표면에 문양의 윤곽을 선각한 뒤 주변을 긁어내는 조화·박지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백색 문양과 진회색의 태도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대담하게 생략된 모란의 형태와 힘차게 이어지는 선, 가득찬 문양의 구성이 어우러져 분청사기 특유의 자유롭고 생동감 있는 조형미를 보여준다. 대형의 몸체를 지니고, 뚜껑과 몸체가 온전히 짝을 이루어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희소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참고도판]
1. <분청사기조화모란당초문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4249).
2. <분청사기박지모란문호>,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16.122.1).





053

백자철화운룡문호

白磁鐵畫雲龍紋壺
White Porcelain Jar with Iron-Painted Decoration

高 25
口徑 12
底徑 13.5

₩ 120,000,000-240,000,000



본 작품은 짧게 직립한 구연 아래로 건부가 둥글게 부풀며, 동체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좁아진다. 동체 전면에는 구름 사이를 헤치며 여의주를 향해 날아가는 용을 철화로 표현하였다. 용의 얼굴과 비늘을 섬세하게 묘사하였으며, 건부와 저부에는 연판문을 돌려 장식성을 더하였다.



백자청화장생문병

白磁靑畫長生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31
口徑 4
底徑 14

₩ 25,000,000-50,000,000

십장생은 19세기 청화백자에 즐겨 사용된 대표적인 소재로, 신선 세계와 장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자연물 가운데 장생長生과 관련 있다고 여겨진 해, 산, 바위, 물, 구름, 학, 사슴, 거북, 불로초, 소나무 등 열 가지 대상을 장수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청화백자에 표현된 십장생문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작품은 몸체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놓인 조선 후기 병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둥근 동체에서 목을 거쳐 곧게 선 구연부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이 특징적이다. 동체에는 사슴, 학, 거북, 대나무, 소나무 등의 장생문을 화면 가득 시문 하였으며, 청화의 농담을 달리하여 문양에 생동감과 깊이감을 더하였다. 굽 둘레에는 청화선 한 줄을 둘러 단정하게 마무리하였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청화靑畫- 푸른빛에 물들다』, 2014.



[수록처]
조선관요박물관, 『조선도자수선』, 2002.



[참고도판]
<백자청화십장생무늬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1229).





백자명기 도용 8점 일괄

白磁明器陶俑八點一括
A Set of Eight Funerary Pottery Figurines

馬形_高 7.5
人形_高 9.5 외

₩ 15,000,000-30,000,000

지물을 든 인물 도용陶俑 2점과 가지런히 손을 모은 인물 도용 5점, 그리고 마용馬俑 한 마리가 일괄로 구성된 백자 명기 도용 8점이다. 품에 지물을 안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은 한 명은 머리를 틀어올리고, 한 명은 양쪽으로 머리를 올려 묶었다. 그 만듦새가 정교하며, 지긋이 눈을 감고 있는 평화로운 표정이 인상적이다. 두 명보다 조금 작은 인물 5명은 철화로 머리, 얼굴, 소매를 장식하여 돋보이게 하였다. 작은 크기임에도 얼굴의 표정과 복식의 일부 특징이 잘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은 조각하여 깎아낸 직선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 풍긋한 귀와 살짝 든 앞발, 양각으로 장식된 안장 등이 주목할만하다. 명기에는 그릇 기명들과 함께 시종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물형 명기들이 함께 부장된다. 인물과 함께 마상을 무덤에 넣는 것은 통일신라 대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법령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도 ‘거마와 복종·시녀가 각각 봉양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데, 평시의 생활을 형상하되 작게 한다.[刻木爲車馬·僕從·侍女, 各執奉養之物, 象平生而小.]’ 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인물상이나 마상의 명기가 부장되는 시기가 대체로 16세기 후반 경에 많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본 작품의 연대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장지영, 「조선 후기 왕실용 소형 백자 명기(明器)의 특징과 사용배경」, 『한국문화연구』 4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5.





056

백자청화'제'명제기

白磁靑畫'祭'銘祭器
Blue an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高 7.5
口徑 17.5
底徑 10

₩ 2,000,000-4,000,000



057

백자양이잔

白磁兩耳盞
White Porcelain Cup with Two Handles

高 4
口徑 7.2
底徑 3.5

₩ 2,500,000-5,000,000



PART 3

공예

工藝
CRAFTS

Lot.058 - 081

058

표주박

瓢子
Gourd-shaped Container

長 12

₩ 1,000,000-2,000,000



059

표주박

瓢子
Gourd-shaped Container

長 14

₩ 1,000,000-2,000,000



060

목안

木雁
Wooden Wild Goose

高 19

長 35

₩ 5,000,000-10,000,000



금사자수단학흉배 한 쌍

金絲刺繡單鶴胸背一雙
Pair of Gold-Thread Single-Crane Rank Badges

액자 Framed
비단에 자수 Embroidered on Silk
각 22×20cm

₩ 4,000,000-8,000,000



[참고도판]
<금사쌍학흉배>, 21.7×24.5cm,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21-15호, 숙명여
자대학교 소장(흥 43).



062

은입사장생문필통

銀入絲長生紋筆筒
Brush Holder with Silver-Inlaid Longevity Symbols

高 11.5
口徑 8.5
底徑 8.5

₩ 5,000,000-10,000,000



경서필통

經書筆筒
Confucian Classics Slip Container

나무에 먹 Ink on Wood
17×7.4cm

₩ 15,000,000-30,000,000

조선시대에 경전經典의 첫 대목을 적은 죽간을 모아 놓은 통이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면 서 통상 칠서七書, 즉 사서삼경四書三經 중에서 첫 구절만 뽑아 죽간의 상중하上中下 세 단락에 앞뒤로 적어놓고, 무작위로 죽간을 뽑아 자신의 독서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용도로 썼다.
예를 들어, ‘견제쇠자見齊衰者’는 《논어論語》<자한子罕>에 “공자께서 부모의 상복을 입은자와 면류관을 쓰고 의상을 입은자와 소경을 만날 때에는 상대가 비록 어리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시며, 지나심에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지나셨다. 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 見之, 雖少必作, 過之必趨.”라는 구절의 첫머리를 요약한 것이다.



經書筆筒

1. 자장문 종정의子張問 從政矣
《논어》<요왈堯曰>에 “자장이 공자에게 여쭙었다. 어떻게 해야 정하게 종사할 수 있습니까까?[子張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라는 구절의 첫 머리를 요약한 것이다.
2. 맹자왈석제孟子曰昔齊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사냥할 적에, 대부를 부를 때 쓰는 정旌이라는 깃발로 우인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孟子曰昔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라는 구절의 첫 머리이다.
3. 요이부득순堯以不得舜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요임금께서는 순과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함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으셨고, 순임금께서는 우운와 고요阜陶같은 사람을 얻지 못함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으셨다.[堯以不得舜爲己憂, 舜以不得禹皐陶爲己憂.]”라는 구절의 첫 머리이다.



064

만자문붓걸이

卍字紋筆架
Brush Rack

30.5×34cm

₩ 1,000,000-2,000,000



065

붓걸이

筆架
Brush Rack
29×43

₩ 1,000,000-2,000,000



066

매죽학문일월연

梅竹鶴紋日月硯
Inkstone with Plum, Bamboo and Crane Design

高 2
27.6×10.9cm

₩ 6,000,000-12,000,000



067

구족연상

九足硯床
Inkstone Table

高 25
20×39cm

₩ 3,000,000-6,000,000



068

경상

經床
Writing Desk

高 32
28.4×70.2cm

₩ 5,000,000-10,000,000



069

약함

藥函
Medicine Box

高 6.2
32×24.3cm

₩ 1,800,000-4,000,000



Lot.042

백자청화난초문약호
白磁靑畫蘭草紋藥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070

약장

藥櫃
Medicine Chest

高 40
22.5×39.5

₩ 5,000,000-10,000,000



071

곰돌주자

蠟石注子
Agalmatolite Ewer

高 17
口徑 21

₩ 4,000,000-8,000,000



072

우보소반

牛步小盤
Ubo Soban Table

高 26
41×40

₩ 1,000,000-2,000,000



073

예천소반

醴泉小盤
Yecheon Soban Table

高 28
43×43

₩ 1,500,000-3,000,000



074

옷칠음각송록문함

漆陰刻松鹿紋函
Lacquered Box with Incised Pine and Deer Design

高 25.5
24.5×4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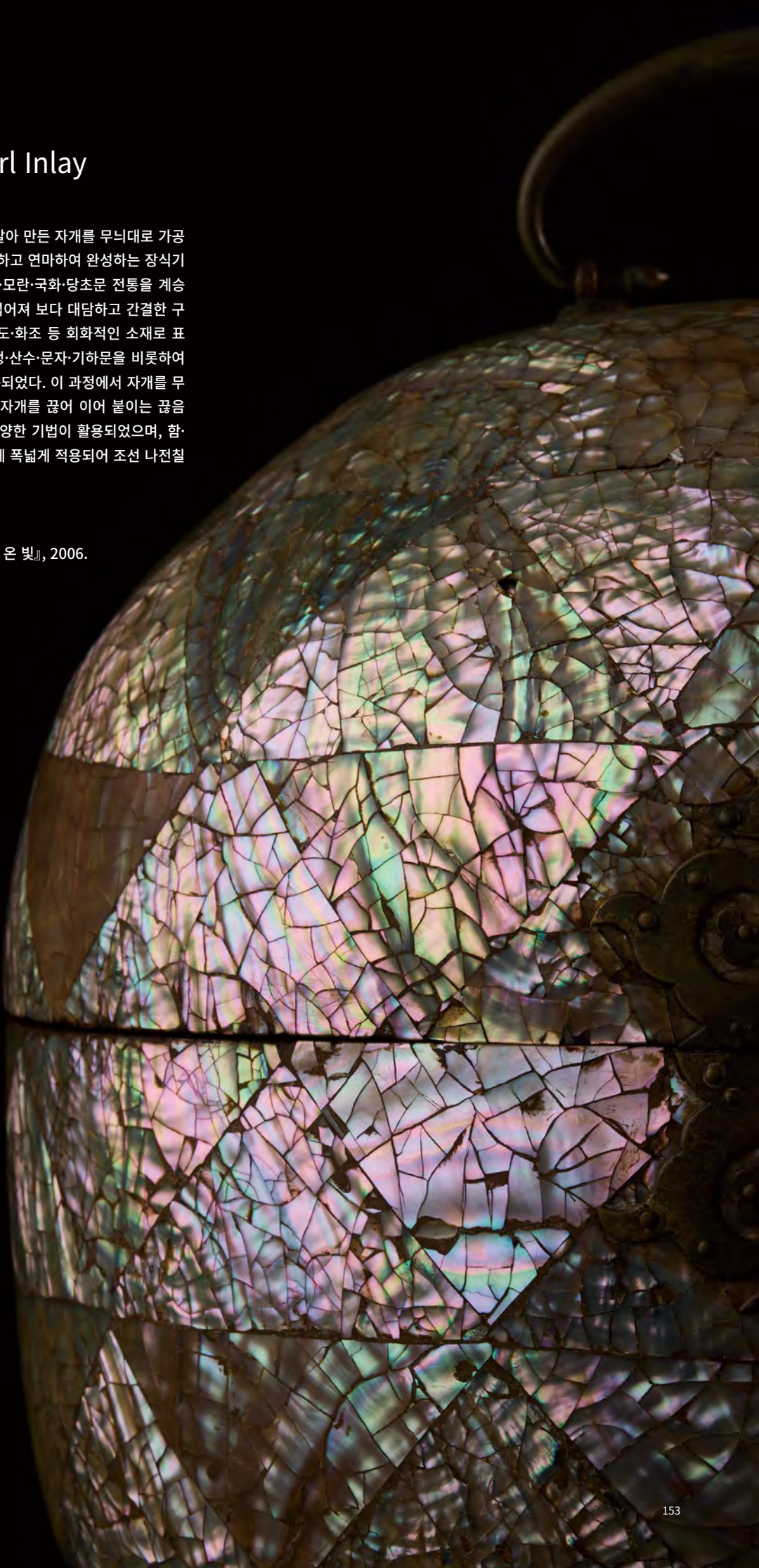
₩ 4,500,000-10,000,000



나전
螺鈿 Mother-of-Pearl Inlay

나전공에는 전복·소라 등의 패각을 얇게 갈아 만든 자개를 무늬대로 가공하여 옷칠한 기를 표면에 붙이고, 다시 칠하고 연마하여 완성하는 장식기법이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 나전의 연꽃·모란·국화·당초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문양이 커지고 바탕의 여백이 넓어져 보다 대담하고 간결한 구성이 나타났다. 중기에는 매화·대나무·포도·화조 등 회화적인 소재로 표현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후기에는 십장생·산수·문자·기하문을 비롯하여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길상문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개를 무늬대로 오려 붙이는 줄음질과 가늘게 썬 자개를 꿰어 이어 붙이는 꿰음질, 자개를 두드려 부착하는 타발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함·연상·장롱·농과 같은 생활 가구와 문방구에 폭넓게 적용되어 조선 나전칠기 특유의 실용성과 장식성을 이루었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나전칠기 - 천년을 이어 온 빛』, 2006.



075

나전칠화초학문함

螺鈿漆花草鶴紋函
Lacquered Box with Mother-of-Pearl Floral and Crane Design

高 30
27.5×44.5cm

₩ 10,000,000-20,000,000



076

나전칠장생문연상

螺鈿漆長生紋硯床
Lacquered Inkstone Table with Mother-of-Pearl Longevity Design

高 28.5
29 × 46cm

₩ 4,500,000-15,000,000



077

나전칠어피태극문구형함

螺鈿漆魚皮太極紋球形函
Spherical Lacquered Box with Taegeuk Design in Mother-of-Pearl Inlay

高 28.5
口徑 27
底徑 10.5

₩ 80,000,000-160,000,000





078

나전빗접

螺鈿漆梳函

Mother-of-Pearl-Inlaid Lacquered Box

高 29.5
39.5×25.5cm

₩ 5,000,000-10,000,000



079

나전칠산수문문갑

螺鈿漆山水紋文匣
Lacquered Document Chest with Mother-of-Pearl Landscape Design

高 42
29×88.5cm

₩ 10,000,000-25,000,000



080

죽장함

竹粧函
Bamboo-Veneered Box

高 22
31×62cm

₩ 4,500,000-9,000,000



081

보성재판

寶城灰板
Boseong Smoking Utensil Tray

高 26.5
45.5×82.2cm

₩ 4,000,000-8,000,000

응찰등록신청서 BIDDING APPLICATION FORM

No.	Lot No.	작가명 Artist	작품명 Title	응찰가격 Bid Price
1				
2				
3				
4				
5				
6				
7				
낙찰수수료 불포함 Buyer's Premium is not included				

1. 상기 경매 물품에 대하여 기재한 응찰가격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응찰하는 것을 위임하며, 경매 참여에 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1. I delegate the bidding of the MYART Auction on behalf of myself to the bidding price described in the auction Lot. I agree that the auction participation is subject to the MYART Auction terms.
2. If the bidding price is all the same by open (saleroom) bidding or writing and telephone bidding, there is a priority of winning bidding in the order of writing, open (saleroom), and telephone. If the bidding in writing competes at the same price, the person who first applied for the bidding registration has a priority.
3. Since the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is disclosed on the auction date, the bidder must submit the bidding price directly after being granted the qualification for the bidding and submit it in a sealed state. ♦ marked Lot is bid only by the bidding method. If it competes with the same price, there is a priority for the winning bid by the bidding registration number.
4. Not with 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uction, if the successful bidder inevitably withdraws the winning bid, the auction shall be made clear in absentee within 7 days from the auction date. Need to pay 30% of the hammer price for the penalty. Apart from the penalty, if the withdrawal of the winning bid causes damage, we can claim damages to the successful bidder. The auction will be canceled once the MYART Auction receives the absentee and winning withdrawal fee.

[illegible]

상기 응찰자 본인은 응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마이야트옥션으로부터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함과 동시에 위탁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Date 20
 신청인 Name 서명 Signature

회원가입 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MAINSTAY ART AUCTION

0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www.myartauktion.com]
 Register through online at MYART website [www.myartauktion.com]

Apply membership application form by stealing tax [F.02-313-5527]

*계좌입금 후 마이아트옥션으로 연락 바랍니다.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마치면 경매 도록과 함께 각종 정보를 제공 받게 되고 경매에 자유롭게 응찰하실 수 있으며, 수장고 이용료 및 감정수수료의 10% 할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회원 가입을 마치면 경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 따라 경매 도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으나, 경매 응찰은 제한됩니다.

☐ **마이아트 옥션의 경매약관을 정확히 읽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I clearly read MYART Auction's terms and conditions.

Date 20

신청인 _____ 서명 _____
Name _____ Signature _____

 MAINSTAY ART AUCTION 03146 B1/5F/6F, Chunghun Bldg.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02-735-1110 F.02-737-5527 <http://www.myartauction.com> myart@myartauction.com

주식회사 MYART AUCTION 경매약관

본 약관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이아트웍스 오프라인 경매 및 매매계약은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경매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본 경매 약관과 관련하여 경매도록 등에 포함된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주)마이아트웍스(이하 "마이아트웍스"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의 절차와 제반기준 및 관련자들의 권리·무 단, 마이아트웍스와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서 규율한다.

2 정의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웍스가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경매 및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품, 미술품, 창작물 등과 이윤권, 교환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고 "경매물품"이라 함은 마이아트웍스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2.3 "경매도록"이라 함은, 마이아트웍스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웍스가 발간하는, 마이아트웍스 경매에서 경매 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웍스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2.4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이 경매에 부착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2.5 "경매기간"이라 함은, 마이아트웍스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6 "응찰자"라 함은, 마이아트웍스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웍스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마이아트웍스가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웍스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을 말한다.

2.8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9 "낙찰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헌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1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선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2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웍스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웍스 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웍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3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웍스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4 "사자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웍스와 경매사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5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6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7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마이아트웍스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마이아트웍스가 매도인인 경우) 마이아트웍스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8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 등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마이아트웍스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19 "개별회사"라 함은 마이아트웍스, 자회사 또는 마이아트웍스에 의해 지배되거나 마이아트웍스와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웍스

마이아트웍스가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마이아트웍스는 위탁자(즉,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마이아트웍스는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로 다. 단, 마이아트웍스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와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마이아트웍스는 마이아트웍스의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마이아트웍스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 의 장소, 일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이아트웍스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마이아트웍스와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경매도록 등에 따라 위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및 마이아트웍스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증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련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마이아트웍스는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및 그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와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웍스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6.1 마이아트웍스는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한국원 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한다. 추정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판

매가 위탁자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이아트웍스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는 구매수수료 및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웍스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웍스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또는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표시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경매도록에 표시된 추정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를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으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 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응찰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마이아트웍스는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의 미국달러, 일본엔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마이아트웍스는 홈페이지 그리고 경매 도록 등에 경매의 예정 일시 및 기간을 공지한다. 단, 당해 경매의 예정 시작일 이전에 공지 없이 마이아트웍스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일시,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마이아트웍스와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참여자들의 권리보호 및 경매의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및 온라인응찰 등 각각의 응찰에 불문하고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경매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경매사는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연속적인 호가 또는 각각의 응찰에 대한 응답으로 내정가 미만의 호가를 할 수 있다. 경매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내정가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입찰한 응찰을 공개 할 의무가 없다.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응찰을 할 수 있다. 마이아트웍스는 절대적 재량으로 응찰자의 입찰에 관한 담보로서 필요한 재정 조회, 보증, 예탁금 및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7.5 모든 응찰은 뉴욕, 뉴욕 또는 기록(이하 "응찰기록"이라 하고, 전자기록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응찰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며, 응찰의 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이아트웍스가 보관하는 응찰기록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록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에 동의한다.

7.6 제7조 및 제7.8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7.6.1 공개응찰의 경우, 응찰자는 경매사의 응찰 초청 후 자신의 패들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6.2 서면응찰의 경우, 경매사는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수령하기 이전에 서면응찰에 의한 응찰을 공개한다.

7.6.3 전화응찰의 경우, 마이아트웍스의 직원은 응찰자를 대리하여 경매장에서 응찰한다.

7.6.4 온라인응찰의 경우 오프라인 경매의 호가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이아트웍스 온라인경매약관이 적용된다.

7.6.5 동일한 응찰자가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응찰하며 연속된 호가로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는 그 응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마이아트웍스와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자로부터의 연속된 호가의 응찰을 거절할 수 있다.

7.6.6 비교가 응찰의 경우, 최고가에 낙찰되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응찰하고 경매사가 경매장에서 개찰한다.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웍스는 각각의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전산 장애, 전산 지연, 전송망의 속도 차이 또는 위 각각의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마이아트웍스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각각의 응찰이 마이아트웍스에 수령된 경우, 마이아트웍스는 위 각각의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각각의 응찰과 관련한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웍스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9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서면응찰과 공개응찰 또는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만약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마이아트웍스가 먼저 수령한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마이아트웍스와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가가 있는 경우 제 7.11조에 의하여 최고가 응찰이 수락되기 전까지 그 우선순위를 고지할 수 있고, 다음 호가를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7.10 마이아트웍스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예정된 경매일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 경매기간동안 경매에 부착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 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이아트웍스의 단독 판단에 의한 때 본 경매 발생할 수지가 없는 경우, 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또는 경매를 취소.

경매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7.10조에 따른 마이아트웍스의 조치나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본 제 7.10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마이아트웍스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마이아트웍스이나 매도인은 이 의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웍스는 이의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1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물품의 매매는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최고가 응찰을 수락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이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한다. 다만 경매 물품의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하여 즉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12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마이아트웍스가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3 제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출품자에 대하여 작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홍보물

마이아트웍스는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이아트웍스에 의해 또는 마이아트웍스를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마이아트웍스에게 있다. 이는 마이아트웍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마이아트웍스이나 매도인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9.1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구매수수료는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마이아트웍스는 경매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홈페이지,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된 구매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9.2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9.3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탁수수료율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9.4 당사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제세금(이하 "제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 및 마이아트웍스가 제세금을 환원징수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만, 제세금의 최종적인 납부무는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납부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9.5 경매물품의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다. 마이아트웍스는 응찰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응찰 전까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낙찰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10.1 마이아트웍스는 낙찰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송장을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낙찰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10.2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마이아트웍스가 다음 각 호의 금액 전액을 수령하는 때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 10.2.1 송장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송장이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단 구매가의 30%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이아트웍스에 위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마이아트웍스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마이아트웍스의 재량에 의하여 지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마이아트웍스와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찰자와 마이아트웍스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 해당 경매물품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구매가 및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마이아트웍스는 낙찰자(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마이아트웍스가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마이아트웍스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마이아트웍스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4.1 경매의 취소 및 마이아트웍스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를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마이아트웍스 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기타 마이아트웍스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마이아트웍스의 다른 권리와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찰자는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마이아트웍스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마이아트웍스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마이아트웍스가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마이아트웍스와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마이아트웍스는 제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마이아트웍스는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마이아트웍스가 하지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10.6.2 마이아트웍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 이 없는 경우.

10.7 마이아트웍스와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마이아트웍스는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기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웍스는 위 포장 및 인도 기간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마이아트웍스는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과된 이후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마이아트웍스가 보관한다.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 10.6조에 따라 마이아트웍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이아트웍스가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위 기간 이 도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비용(운송료, 보험료 포함)을 부담하며, 이 때의 보관비용은 마이아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0.9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마이아트웍스는 당해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수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이아트웍스는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웍스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이해야 한다.

12 경매 전,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경매후 경매물품"이라 한다), 마이아트웍스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의 구속을 받는 응찰의 접수; 그리고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마이아트웍스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매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마이아트웍스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증서류를 마이아트웍스가 위 요구 시 정한 기간 이내에 마이아트웍스에 제공 한다.

12.3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는, 마이아트웍스가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송장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그 송장은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웍스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웍스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웍스), 제6조(추정가), 제7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제8조(홍보물), 제9조(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제11조(수출/수입 허가증),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제14조(제한보증), 제15조(제한책임),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제17조(정보보호관련), 제19조(기타),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 및 경매도록 등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2.5 마이아트웍스는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물품에 대하여 상설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세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에 표시된 그리고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및 매도인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 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색상,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 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을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 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마이아트웍스는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 하였다는 전체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마이아트웍스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프레임 및 액자의 파손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이아트웍스 및 매도인은 명백하고 또는 중과실의 경유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1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13.3.2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웍스, 그 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마이아트웍스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다만 마이아트웍스는 일부 표제 사항에 대하여는 경매도록 및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14.2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마이아트웍스에게 제시하지 않은 이상, 마이아트웍스는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다).

14.3 제14.2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지 원하는 낙찰자는

-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마이아트옥션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시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송장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마이아트옥션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마이아트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0 마이아트옥션이 경매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이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및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6.2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경매도록 등을 포함한 경매도록 상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동안 마이아트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 고객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의 계열회사 및 그룹

(ii)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 (i)조와 제17.3 (ii)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마이아트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제 및 마이아트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 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

인함으로:

(i) 일반적인 통지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다음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시점까지 마이아트옥션의 관리하에 있는 위탁자와 낙찰자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다.

18.1.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시점까지

18.1.2 경매물품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마이아트옥션이 인지하게 되거나 진품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까지

18.1.3 마이아트옥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고객 확인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8.1.4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 조사로 인해 해당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 이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보관료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제3자 또는 마이아트옥션 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8.2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이 보유중인 위탁자 혹은 낙찰자의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18.3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가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8.3.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3.2 위탁자 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4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마이아트옥션 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여, 위 환율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5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6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경매도록 등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7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전자확인서가 첨부된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마이아트옥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6층 601호 (관훈동,충훈빌딩)

전화번호: 02) 735 1110

팩스: 02) 737 5527

이메일: myart@myartauction.com

응찰자 및 낙찰자 등 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관련자는 주소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의 통지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의 통지가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8.8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9 마이아트옥션의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 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10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1 국문, 영문, 중문 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본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모든 당사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마이아트옥션에 통지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부 칙

본 개정 약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MYART AUCTION

제62회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할 소중한 작품의 위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매일정	2026년 11월
작품위탁일정	2026년 9-10월
출품방법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 을 통한 사진 자료 송부
우편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6F (주) 마이아트옥션으로 사진 송부
Tel	02-735-1110 (대), 735-9938을 통한 상담
Fax	02-737-5527

*** 고객님의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작품 사진(jpg 파일 또는 인화사진)과 작품정보, 출품희망가,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작품 위탁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INSTAY ART AUCTION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F, B1 03146 5F, B1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 2 735 9938 Fax +82 2 737 5527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